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8월  
석사 학위 논문

남정현과 손창섭의 전후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젠더 수행성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심 소 연

남정현과 손창섭의 전후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젠더 수행성  
연구

A Study on Gender Performance of Male  
Characters in Post-war Novels by Nam  
Jeong-hyeon and Son Chang-seop

2022년 8월 26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심 소 연

남정현과 손창섭의 전후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젠더 수행성  
연구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심 소 연

# 심소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차승기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신형철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형중 (인)

2022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II. 남정현 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젠더 과잉수행 양상

1. 과시적인 남성과 자기폭로
2. 정신병리적 풍자와 희화화

### III.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젠더 비수행 양상

1. 무기력한 남성과 자기부정
2. 동성애적 친밀성과 규범적 남성성의 이탈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A Study on Gender Performance of Male Characters in Post-war Novels by Nam Jeong-hyeon and Son Chang-seop

Sim So Yeon

Advisor : Prof. Kim Hyung Joong,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Korea, 'post-war novels' collectively refer to novels dealing with war experiences and life after June 25, 1950. In particular, the Korean War has a more complex historical context in that it broke out within a few years of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an Korea became a new colony by the U.S. In the case of Korea, the transition from the pre-modern feudal patriarchal system to the modern patriarchal national state had a process of heteronomous modernization called 'colonial land'. The colonial system was resolved by Japan's defeat in the Pacific War, but the ensuing Korean War strengthened the colonial trauma rather than overcoming it. This can be called postcolonial amnesia.

In this context, problematic men characters who show dual aspects in realizing their 'subjectivity' appear in postwar novels. This can be analyzed under the name of 'colonial masculinity'. In summary, 'colonial masculinity' refers to the act of imitating imperial logic by criticizing and identifying the male of the empire that unfairly dominates him, or by turning anger and frustration at the colony to the female colonized. In the case of Nam Jung-hyun's novel, it can be seen that he identifies with an imperial man, imitating his behavio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on Chang-seop's novel, it can be seen that he relies on women and despises women at the same time.

As such, Nam Jung-hyun and Son Chang-seop's novels can

confirm two bipolar aspects of "masculinity" during the post-war neo-colonial period of the 1950s and 1960s, which is called gender over-performance and non-performance, respectively. The gender over-performance and psychopathological satire of Nam Jung-hyun's novel have the effect of satirizing the masculinity that the male protagonist is obsessed with. Meanwhile, in Son Chang-seop's novel, he does not perform normative masculinity, but rather visualizes masculine homosexuality excluded from the masculine homosexual society, and it shows a departure from normative masculinity. Thus, The two methods of masculinity have a paradoxical meaning in that they reveal colonial masculinity in different ways while "relativizing" their masculinity as "satire" and "deviation" of masculinity. This suggests a contradictory defect in normative masculinity.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한국에서 ‘전후戰後소설’은 1950년 6월 25일 이후로 전쟁 경험과 그 이후의 삶을 다루는 소설들을 총칭한다. 전쟁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오랜 시간에 걸친 후유증을 남겼다. 특히 한국 전쟁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발발하였으며, 뒤이어 한국이 미국에 의한 신식민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 전후에 생산된 소설들은 직접적인 전쟁 경험 이외에도 일제 식민지의 기억과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쟁은 휴전협정을 맺음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그것은 휴전에 불과했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미군정의 지원 및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국가를 바로 세울 민족 주체를 필요로 했다.

새로운 민족적 주체성을 요구했던 전후 남한의 경우, 전근대 가부장적 봉건사회에서 근대 가부장제 국민국가로의 이행에 ‘식민지’라는 타율적 근대화의 과정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식민지는 정치·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체제를 뜻한다. 조선은 일제에 의한 제국-식민지 체제 속에서 정치·경제적 주체성을 상실했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정치적 권리와 주체성을 놓고 피식민자와 식민당국 사이의 경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식민지 전시체제기의 ‘황민화 정책’을 들 수 있다. 태평양 전쟁의 본격화로 인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조선 민족의 완전한 황국식민화’를 표방하면서 ‘내선일체’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에 징병제를 도입(1943)하여 조선인을 군사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식민지 전시체제기에 일본은 ‘제국의 병사’를 충원하기 위해, 급하게 조선인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 징병제라는 ‘의무’는 그것에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조선인들도 징병제를 통해 조선인의 육체로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조선인’과 ‘국민됨’의 간극을 해소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성된 것이다. 그것은 피식민자의 주체화 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이는 “국민됨 혹은 국민문화의 질적 성격 및 그 형성 가능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체적 계기의 확보-타자성에 대한 인정-투쟁”<sup>1)</sup>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그들이 조선인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로 ‘국민화’되는 것을 경계했던

바, 충분히 ‘황민화’되지 않은 피식민자에게 주어진 총칼의 방향, 즉 조선인의 배반 가능성과 독립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징병제는 조선인과 내지인의 장기적인 ‘내선일체’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태평양 전쟁의 본격화는 급히 징병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 틈에서 조선인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권리 획득에 앞서서 의무의 이행을 통해 스스로 ‘자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sup>2)</sup>으로, 결론적으로 식민 당국의 논리에 포섭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식민지 체제에서 피식민인의 주체성이란 오로지 ‘황민’이 됨으로써 실현 가능한 것이지, 동시에 결코 ‘내지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좌절되는 것이었다. 징병제 실시를 통하여 조선인과 식민당국 사이 ‘주체성’을 놓고 벌이는 경합은 결국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만다. 1945년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배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식민지 체제가 해소된 것이다.

이와 같은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본에 의한 주권 상실의 경험은 한국 근대사의 초입부터 그 주체성과 독립성의 구성에 뿌리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게다가 식민지 체제가 해소되었던 것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해방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외상이 발발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성찰은 계속해서 유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식민지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식민지 경험은 근대적인 삶의 형식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식민지적 기억은 ‘청산’되지 않고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자립적인 국민국가의 수립은 식민지 경험으로 인하여 격화된 민족적 대립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족-국민국가의 수립으로 연결되었다. 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재구축하기 위한 민족 주체를 요구하였는데, 여기서 정부가 민족 재건을 위해 요청한 ‘정상성’이란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성-청년’이자, 해체된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이성애자로서의 남성성이었다. 또한 전쟁과 군사주의적 정부가 요청한 ‘호전적 남성성’은 한국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 장용경, 「‘朝鮮人’과 ‘國民’의 간극 - 전시체제기 內鮮一體論의 성격과 조선 지식인들의 대응-」, 『역사문제연구』 15, 2005, 299쪽.  
 2) 강유인화, 「식민지 조선과 병역 의무의 정치학-일제의 징병제 시행과 ‘국민됨’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9, 2016, 92쪽.

‘전시 한국문학선 시편戰時 韓國文學選 詩篇’(『국방부정훈국』,1955)을 분석한 장은영에 따르면, “한국 전쟁기의 젠더 담론은 전쟁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며, 사적 영역을 국가화”한다. 또한 “남성을 국민 주체로 형상화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대한 보완적 존재로 형상화하는 ‘젠더 이원화 양상’”<sup>3)</sup>을 드러낸다. 이는 국가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남성에게 “국가 수호의 임무와 함께 시민권을 부여”<sup>4)</sup>하는 것이다. 당대의 문학작품에서도 이러한 ‘전방의 남성, 후방의 여성’이라는 이분화된 성별구분이 나타난다. 서사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전후에 생산된 소설에서 이러한 ‘사적 영역의 국가화’는 가족의 재건으로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가족의 훼손으로 민족의 수난을 비유하는 ‘가족-민족 알레고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남성 인물은 민족을 재건하는 서사적 주체가 되며, 여성 인물은 민족의 훼손을 상징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러한 ‘가족-민족 알레고리’ 속에서 남성 인물은 민족을 재건하고 회복할 의무를 지닌 주체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소설에는 자신의 상실된 ‘주체성’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문제적인 남성들이 등장한다. 그들에게는 ‘가족-민족 알레고리’ 속에서 가족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의 최소단위를 구축하고 자신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소망과 임무가 주어지지만, 그것에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남성 인물의 주체성은 여성을 식민화함으로써 이루어지거나, 혹은 대타자로 기능하는 다른 남성간의 관계에서 동일시를 통해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식민지 남성성’이라는 이름으로 분석 가능하다. 정희진은 「한국 남성의 식민성과 여성주의 이론」에서 ‘식민지 남성성’의 시론을 시도한다. 식민지 남성성이란 식민지배 속에서 피식민 남성이 가부장으로서의 성역할, 즉 생계부양자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남성 답지 못한 남자’가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말한다. 식민지 남성성의 이중성은 기존 가부장적 질서가 붕괴한 현실 속에서 ‘동일시’할만한 역할모델을 찾을 수 없는 피식민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식민지 남성성’이란 피식민 남성이 자신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제국의 남성을 비판하면서도 그에게 동일시함으로써 제국주의 논리를 모방하는 행위, 혹은 식민지배와 억압에 대한 열등감을 여성에게 돌려 여성성을 타자화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우위를 내세움으로써 남성권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를 자임하는 ‘식민지 남성성’에 대

3) 장은영, 「전후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 『한국비평문학회』 65, 2017, 223쪽.

4) 장은영, 앞의 논문, 226쪽.

한 분석은 “한국 남성 문화에 대한 탈식민 분석의 일환”<sup>5)</sup>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식민지 남성이 제국에 의해 억압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훅스(bell hooks)는 “피식민지 남성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식민 지배자의 입장을 취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거세되고 유아화된 자기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행위는 “식민지 남성과 식민 지배자가 식민지 여성을 억압하는 동지적 관계”를 맺음을 뜻하며, 이는 곧 제국과 식민지의 ‘남성연대’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식민지 여성은 “민족의 남성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거는 반식민 민족주의의 신성한 사명감” 가운데 “지배국에 의해, 또 같은 종족의 남성들에 의해 이중으로 식민화”<sup>6)</sup>된다.

말하자면 ‘식민지 남성성’은 기존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부장의 지위’를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 여성에 대한 식민지 남성의 이중성은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민족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여성의 희생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여성을 징벌하는 것은 가부장제 하의 남성연대가 목과하였다. ‘거세당한’ 남성성을 ‘여성적인 것’으로 등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점유한 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식민지 남성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위 속에서 식민지 여성은 벨 훅스의 말처럼 ‘이중 식민화’된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강렬하게 회복을 염원하는 식민지 남성의 주체성 또한 필연적으로 자기기만을 낳는다는 점이다. 식민 지배와 전쟁 시기를 겪으면서 민족의 ‘아들’이 ‘아버지’를 잃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의 남성이라는 새로운 대타자에게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자국 여성을 이중 식민화함으로써 눈앞에 닥친 억압적 현실을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탈식민의 태도는 모순적인 것이다. 해방 이후 국가가 상상하고 요구했던 ‘남성성’, 민족 주체와 민족 영웅으로서의 남성성은 가닿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급적·민족적 열등감에서 파생된 남성권력의 폐쇄적 작동은 식민지라는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 중 하나이며, 한국의 견고한

5) 정희진, 「한국 남성의 식민성과 여성주의 이론」,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14쪽.

6) 최정무,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적 구조」,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30쪽. 원문은 bell hooks, “The Imperialism of Patriarchy”, in *Ain't I a Woman* (Boston: South End Press, 1981) 재인용.

‘민족-남성’ 주체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의 경험과 그 이후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그것과 결탁한 군사주의적 독재정치 속에서 식민지가 남긴 과제들을 해소하고 반성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식민지의 상처를 일소하거나 완전히 매장해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식민지의 트라우마를 굴절된 방식으로 고착”<sup>7)</sup>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체제 속에서 경제·정치·사회적으로 주체성을 박탈당한 피식민지 남성들이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한국의 전후 소설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러한 식민지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남성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보편적인 위상을 젠더화·정치화·역사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분야를 흔히 ‘여성학’이라 총칭하는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남성성이란 일관성을 갖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여성성은 문화적으로 억압당한 집단으로서 특수하고 가변적인 정체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과 반대로 말이다. 하지만 남성성이란 명예롭고 일관적인 정체성도, 본질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남성성’의 범주를 ‘가부장적 남성성-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이름으로 환원할 수 있었던 것은 가부장의 권력이 위협해질 때마다 ‘남성의 위기’<sup>8)</sup>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틈새를 봉합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문학에서 일반적인 위치를 점유해왔던 ‘남성성’이 ‘역사적인 담론구성체’임을 역설해야 하는 이유이며, 젠더 연구를 시도할 때 ‘여성성’만이 아닌 ‘남성성’을 필히 화두에 올려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남성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변적이고 구성적인 ‘과정 중의 주체’로서의 젠더의 의미를 강조한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sup>9)</sup> 개념은 유용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후의 텍스트 중 남정현과 손창섭의 소설을 다루어 남성 인물의 젠더 수행방식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남정현과 손창섭의 소설은 1950, 1960년대의 전후 신식민지 시기 ‘식민지 남성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두 양태

7)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282쪽.

8) 권김현영, 「근대 전환기 한국의 남성성」,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72-73쪽, 참고.

9)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에서 젠더 규범은 결코 완전히 내면화될 수 없는 하나의 ‘비유’이며, 결국 완벽히 “체현 불가능한 환영”이라고 설명한다. ‘비유’로서 존재하는 ‘원본’에 위상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패러디하는 ‘수행’이다. “젠더의 속성과 행위들, 몸이 자신의 문화적 의미를 보여주고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수행적인 것이라면, 어떤 행위나 속성이 재단될 수 있는 선형적 정체성이란 없”는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젠더는 선형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반복적인 ‘몸의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수행적인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349-350쪽, 참고.)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소설의 남성성은 젠더의 과잉수행과 비수행으로써 남성성 수행의 극단적인 지점에 자리한다. 두 작가의 소설에서는 ‘식민지 남성성’의 단순한 재현으로 설명하기에 독특한 지점들이 인물의 젠더 수행성에서 파생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1950, 1960년대 소설가 중 남정현과 손창섭 소설 속 남성 인물의 젠더 수행 방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소설가 남정현(南廷賢, 1933.12.13.~2020.12.21.)은 1958년 단편 「경고구역」, 「굴뚝밑의 유산」을 『자유문학』에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문학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남정현은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풍자하였다. 남정현의 이러한 저항의식이 더욱 널리 알려진 계기로 1965년 발표한 소설 「분지糞池」가 반공법에 저촉되어 기소된 필화 사건을 들 수 있다. ‘필화’사건으로 인하여 남정현 소설에 대한 연구도 ‘민족 주체성’에 대한 분석이 다수를 이룬다. 우선 남정현 소설의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사회문화적 입장의 논문이 있다.<sup>10)</sup> 또한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남정현 소설의 저항담론이 기능하는 위치와 여성 이미지 재현을 연결하여 분석하는 논문도 있다.<sup>11)</sup>

다음은 기법상의 접근이다.<sup>12)</sup> 남정현 소설의 저항의식은 무엇보다 ‘풍자’라는 기법으로 드러난다. 실제로 남정현과의 대담에서 작가 스스로 풍자에 대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선 체질화된 민족성의 한 부분”이며, “수많은 세월 외세의 간섭과 그 지배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불씨가 풍자와 같은 그런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sup>13)</sup>라고 말한 바 있다. 남정현 소설에 대해서는 풍자, 아이러니, 알레고리, 그로테스크적 서술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풍자’ 또한 ‘민족 주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하는 흐름이 일반적이거나, 남정현의 풍자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그것은 ‘정신병리적 풍자’이다.

김형중은 남정현의 새로운 풍자 해석 방법으로 ‘정신병리적 풍자’를 제안한다. 그는 남정현의 모든 인물들이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비판 주체인 주인공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남정현 소설에서는 “작가와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긍정적

---

10) 김병걸, 「상황악에 대한 끈질긴 도전」, 『남정현문학전집3』, 국학자료원, 2002.  
 신창용, 「남정현 소설 『분지』에 관한 연구-반미주의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04.  
 강진호, 「외세의 질곡과 민족의 주체성」, 『돈암어문학』 12, 1999.  
 11) 임경순, 「남정현 소설의 성-여성과 윤리 그리고 반공주의」, 『상허학보』 21, 2007.  
 김종욱, 「민족담론과 여성의 이미지-남정현론」, 『한국현대문학연구』 13, 2003.  
 12) 장영우, 「통곡의 현실, 고소의 미학」, 『남정현문학전집3』, 국학자료원, 2002.  
 이봉범, 「남정현 문학의 알레고리와 풍자」, 『반교어문연구』 8, 1997.  
 오양진, 「캐릭터의 인류학-남정현 소설의 풍자와 아이러니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7, 2006.  
 13) 『남정현문학전집3』, 국학자료원, 2002, 29쪽.

인물들마저도 전면적인 풍자의 대상”<sup>14)</sup>이 되며, 그렇기에 남정현의 풍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감정비용을 절감하지 못해 웃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sup>15)</sup>가 있다는 분석은 남정현의 풍자 형식이 가진 모순을 지적하고 남정현의 풍자가 ‘민족 주체성’으로만 해석되는 관습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식민지 남성성’의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 논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남정현 소설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분석이 있다.<sup>16)</sup> 탈식민주의의 분석은 제국주의의 잔재를 검토하고 반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식민인으로서 외세와 독재에 저항하는 남정현 소설의 탈-식민 의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탈식민주의 연구의 최근 흐름에는 남정현 소설의 이중적인 남성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미정은 남정현 소설의 ‘반미’의식을 중심으로 인물의 남성성 내면화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그는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반대에 초점을 맞추어 남정현 소설을 탈식민주의로 규정하는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sup>17)</sup>라고 말한다. 남정현 소설에 강조된 ‘반미’ 감정은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표방하면서도 제국주의의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모방하여 남성을 권력화하는 이중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소설 전반에 걸친 서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남성성을 내면화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는 남정현 소설에 드러난 남성성의 내면화 과정이 곧 “남정현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권력의 재생산 방식”<sup>18)</sup>이라고 지적한다.

홍혜원은 탈식민주의 비평의 관점에서 담화의 소통구조를 통해 남정현 소설의 남성성이 드러난 방식과 여성 표상에 대해 연구한다. 그는 남정현 소설의 기법을 ‘둘러말하기’, ‘신빙성 없는 화자’로 설명하며 남정현의 서간체 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서간체 소설의 대화성은 남성 주인공의 발화 속에서 단일성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담화전략은 ‘화자의 담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일방성은 “‘지배와 피지배’와 같은 엄격한 이분법적 사고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탈식민의 담론 구조를 보여준다고보다 오히려 새로운 중심의 구축(민족주의)과 그것의 강화”<sup>19)</sup>를 의미한다.

14) 김형중, 「남정현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시론-풍자와 정신병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2005, 6쪽.

15) 김형중, 「남정현 소설에 나타난 정신병리와 권력의 테크놀로지 -풍자와 정신병리2-」, 『인문학 연구』 59, 2020, 295쪽.

16) 김윤정, 「남정현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김효석, 「민족주의 담론에 가려진 과거 복원의 욕망-남정현론」,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 문학과비평연구회, 2003.

17) 이미정, 「전후문학에 나타난 남성성 내면화 과정 연구-남정현 소설의 반미감정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7, 2006, 284쪽.

18) 이미정, 앞의 논문, 304쪽.



이때 재식민화되는 것은 여성이다. 그는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극단적 부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역사를 베껴나가는 아이러니”<sup>20)</sup>라며 비판한다.

이미정은 반미감정을 중심으로, 홍혜원은 담화의 소통구조를 중심으로 남정현 소설의 이중적이고 문제적인 남성성, 즉 ‘식민지 남성성’에 대해 비판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제국주의를 부정하면서 그것을 모방하는 행위가 탈-식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이는 민족서사·저항서사로 통했던 남정현 소설에 대한 비평이 숙고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면서도, 남정현의 소설이 제국주의 논리를 ‘재생산’하거나 단순히 ‘반복’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남정현 소설을 설명하는 형식이 ‘풍자’였듯이, 남정현의 소설에서는 그러한 식민지 남성성마저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정현의 소설은 오히려 ‘풍자’라는 형식으로 그것의 남성성을 폭로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남정현 소설의 남성인물들은 당대 사회로부터 억압당해 뜻을 펼치지 못하는 무능한 인물이면서도 그러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비판과 저항의 주체로 여겨진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저항의식의 실천이 한 가지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남정현 소설에서 민족-주체로서 저항하는 인물의 모습은 ‘남성성’이라는 젠더 규범의 과잉, 즉 여성을 객체로 삼아 남성이 자신이 ‘성적 주체’임을 과시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남정현 소설에서 민족-남성의 저항적 실천은 ‘남성다움’의 과잉수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과시적인 수행은 ‘남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인물과의 동일화를 방해하고 그와 심리적·미적 거리를 산출한다. 이때 주인공이 집착하는 ‘남성성’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지며 남성성의 당위성은 파괴된다. 그렇기에 도리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민족 주체로서 전후 식민지 남성성의 불(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남정현 소설에 만연한 ‘정신병리적 징후’는 남성 주인공을 ‘편집증자’로, 그의 행위를 ‘망상’으로 해석하게 한다. 인물의 망상으로 서술되는 남성성의 과잉 수행은 비판 주체의 일관성과 도덕적 위상을 의심하게 만든다. 폭력·외

19) 홍혜원, 「남정현 소설과 탈식민주의-담화 전략과 여성 표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4, 2007, 13쪽.

20) 홍혜원, 앞의 논문, 20쪽.

압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외세·독재의 상징물로 기능하는 부정적인 여성상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풍자하고 조소하는 남성 주인공 또한 풍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 보인다. 남정현 소설의 핵심적 특징인 ‘풍자’와 ‘아이러니’는 풍자 주체인 남성 주인공의 자기폭로가 드러날 때 완성적으로 검토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정현 소설이 제국주의 논리를 단순히 반복하고 재생산한다는 평가는 텍스트의 독특한 형식적 지점을 간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남정현의 소설에서 풍자 주체인 주인공이 행하는 젠더-과잉수행과 정신병리적 망상으로 인하여 주인공의 ‘식민지 남성성’이 폭로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전후 남정현의 소설이 식민지에 대한 저항의식을 ‘남성성’이라는 젠더를 과잉수행함으로써 나타낸다면, 손창섭(孫昌涉, 1922~2010)의 인물들은 반대로 젠더를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후의 상실감과 ‘거세’당한 남성성을 드러낸다. 손창섭은 1952년 단편 「공휴일公休日」과 「사연기死緣記」를 문예에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그는 극단적인 무기력 상태에 처한 불구적인 인간상을 그림으로써 전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묘사했다.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손창섭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가이다. 연구 경향은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의 특징을 분리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크게 전후의 사회현실에 관한 연구<sup>21)</sup>, 정신분석학적 연구<sup>22)</sup>, 구조주의적 서사 형식 분석,<sup>23)</sup> 손창섭 소설의 젠더 표상·정치학 연구로 나뉜다.<sup>24)</sup> 필자는 그중 젠더

---

21) 오혜진, 「재난 이후 일상, 비명과 침묵 혹은 그 사이의 균열-손창섭의 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4, 2019.  
 조명기, 「손창섭의 「生活的」에 나타난 전후의식」, 『語文學』 87, 2005.  
 오태호,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에 나타난 전후(戰後) 실존의식 연구 - 양가적 세계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3, 2014.  
 김원규,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결혼 거부의 의미」, 『현대문학의 연구』 75, 2021.  
 22) 이다은, 「전후 손창섭 문학의 애도와 멜랑콜리 1950년대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3, 2018.  
 김주리, 「손창섭 소설의 매저키즘과 여성」, 『人文論叢』 76, 2019.  
 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 『한국현대소설학회』 40, 2009.  
 23) 이기인, 「손창섭 소설의 미적 구조」, 『어문논집』 27, 1987.  
 김현경, 「손창섭 단편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5.  
 박상인, 「손창섭의 장편<인간교실>에 나타난 ‘시선’의 이중구조와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40, 2011.  
 24)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수호 양상」, 『상허학보』 42, 2014.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학회』 45, 2017.  
 김홍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 하위주체의 위상」, 『국어문학회』 56, 2014.  
 전성욱, 「전후의 현실과 섹슈얼리티: 손창섭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7, 2010.  
 허윤,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Undoing」, 『여성문학연구』 30, 2013.  
 김영범, 「손창섭 소설의 불안과 대응 양상 고찰」, 『한어문교육』 28, 2013.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성욱은 손창섭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남성 중심적 세계에서 희생된 피해자로서의 여성’으로, 나머지 하나는 ‘악녀 혹은 요녀 이미지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형상의 여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유형이면서도 남성중심사회에서의 동일한 타자화 기제이기도 하다. 그는 손창섭이 전후의 사회를 ‘남성중심의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며, “삶의 부정성을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와 연결시킴으로써 모성적인 것의 결핍을 강렬하게 부각”<sup>25)</sup>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은 지식인 출신이면서도 ‘생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자폐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보니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타인, 특히 여성에게 의존한다”<sup>26)</sup>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의 경우, 해방 이후 주체성을 재구축하고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그 회복에 실패하고 또한 그것을 포기하는 남성이 주로 나타난다. 매우 무기력하고, 의존적이며, 삶이 훼손된 남성의 모습이 그려진다. 남성성의 실패는 전쟁 이후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가 와해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에 나선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이어지는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남성은 여성에게 기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들을 멸시한다. 이는 주체성 상실에 대한 좌절감과 열등감을 여성에게 돌려 해소하고자 하는 식민지 남성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이다. 손창섭 소설의 식민지 남성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존-멸시’라는 이중적 도식으로 드러난다. 더불어 남성 인물이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이 ‘결혼’을 거부하는 반복적인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손창섭 단편소설에 등장한 이러한 ‘결혼 거부 모티브’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김영범<sup>27)</sup>은 전후의 한국사회가 흩어진 구성원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였으며, 손창섭 소설은 그러한 가족 공동체의 삶의 기반인 ‘스위트 홈(sweet home)’이 아닌 가족의 제도화로 인한 ‘소외의 공간이자 낯선 홈(unhome)’을 그렸다고 설명한다. 손창섭은 그의 소설에서 “인간관계의 부재로 인한 고립되고 원자화된 삶의 모습”을 ‘깨어진 가족’, ‘부정적인 가족’의 표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가족과 사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25) 전성욱, 앞의 논문, 77-78쪽.

26) 전성욱, 앞의 논문, 82쪽.

27) 김영범, 앞의 논문.

손창섭 소설의 결혼 거부 모티브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박찬효<sup>28)</sup>가 손창섭의 단편 소설 속 결혼 거부 모티프를 단계적으로 분석하듯, 「유실몽」 이전의 작품에서는 ‘결혼 회피형’ 남성이 주로 등장하며, 이후엔 ‘결혼과 유사한 공동체’를 이루는 남성들이 출현하고, 가족 공동체 속에서 결혼을 유지하려는 남성으로 양상이 조금씩 변화한다. 이러한 연구는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결혼 기피의 문제를 통시적으로 접근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남성 인물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단계적으로 차별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단계로 설명되지 않는 인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손창섭 소설 속 남성 인물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자폐적인 모습에서 점차 다양한 태도를 포함하는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김원규<sup>29)</sup>는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결혼 거부 모티프가 소설 「신의 희작」을 중심으로 정신병리적 기원을 마련한다고 비판한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손창섭의 결혼 거부의 양상이 단일한 의미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이는 손창섭 소설 속 반사회적 욕망과 불온함의 가능성이 하나의 정신병리적 기원으로 확정되어, 치료가 필요한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결혼 거부 모티브 속에서 남성 인물의 욕망과 계급성의 문제를 들추어낸다. 이러한 연구는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이 반복하는 결혼 거부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추적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손창섭 소설의 결혼 기피 모티프는 작품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의미를 생성해내는데, 허윤은 손창섭의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모습을 ‘젠더의 비수행Undoing’으로 설명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손창섭 소설의 결혼 거부 모티프가 “이성에 제도에 대한 부정”으로 확장되고, 동성사회성을 성애화시킴으로써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중심축을 뒤흔든”<sup>30)</sup>다고 분석한다. 결혼 거부라는 제도적 문제를 섹슈얼리티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그것의 ‘비수행’에서 정치적 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손창섭 소설의 젠더 연구에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손창섭 소설의 불온한 주체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균열을 초래하여도 다시금 헤게모니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코넬이 설명하듯 가부장제 속에서 주변화된 남성성은 가부장적 배당금을 얻기 때문이다.<sup>31)</sup> 이러한 남성동성사회 속의 남성연대는 피식민 남성이 자신의 민족적·계급적

28) 박찬효, 앞의 논문.

29) 김원규, 앞의 논문.

30) 허윤, 앞의 논문, 65쪽.

31) 코넬에 따르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엄격히 실현할 수 있는 남자는 드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성들이 그것에 실패한다고 해서 남성성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화된 남성들은 헤

열등감을 여성에게 투사하고 남성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폐쇄적인 메커니즘과 연결된다.

하지만 손창섭 소설에서는 가부장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인물이 당시의 규범적 남성성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성 인물의 젠더 비수행이 산출하는 정치적인 가능성은 손창섭 소설에 재현된 식민지 남성성이 텍스트 속에서 굴절된 결과물인 것이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들은 여성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거부함으로써 비수행적인 의미를 산출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창섭의 남성 인물들이 어째서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하느냐는 물음이다. 이에 대하여 손창섭 소설의 남성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자기 혐오’에 주목하고자 한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들은 여성을 멸시하면서 또한 그에게 의존하는데, 동시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 이러한 태도는 신체에 대한 타자성을 느끼는 감각과 연결되는 것이다. 필자는 손창섭 초기 단편소설에서 식민지 남성성이 드러난 양상을 밝히고 남성 인물의 젠더-비수행이 갖는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남정현과 손창섭, 두 작가의 전후소설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수행은 ‘식민지 남성성’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반영함과 동시에 반영이 초래하는 왜곡을 시사하는데, 그것은 젠더 수행성 차원에서 규범적 남성성이 굴절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굴절은 남성성의 ‘풍자’와 ‘이탈’로써 드러난다. 다음 장들에서는 남정현과 손창섭 소설에 드러난 전후 식민지 남성성의 극단적 양상인 젠더-과잉수행과 젠더-비수행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게모니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오히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권위를 승인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부장적 배당금’을 얻는다. 가부장적 배당금이란 전반적인 여성 종속의 결과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얻는 이익을 뜻한다. 즉 남성들은 자신들을 주변화시킨 바로 그 남성성에 공모하여 그것의 문법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R.W 코넬,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27-128쪽, 참고.)

## II. 남정현 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젠더 과잉수행 양상

### 1. 과시적인 남성과 자기폭로

1958년 『자유문학』에 작품을 발표하며 문학활동을 시작한 이래, 작가 남정현이 풍자의 형식으로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소설을 썼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소설 「분지糞池」가 반공법에 저촉되어 기소된 이른바 ‘필화’는 한국의 문학사와 작가 남정현의 개인적인 집필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분지」는 1965년 『현대문학』 3월호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발표된 당시에는 그 내용이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그해 5월 8일 북한의 기관잡지 『통일전선』에 소설이 실린 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적 검열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1965년 7월 9일 중앙정보부는 남정현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sup>32)</sup> 공소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소설 「분지」는 남한의 현실을 왜곡하고 반미감정을 조성하여 북괴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였으며, 또한 남한의 왜곡된 실상에 항거하는 인물을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듯이 묘사함으로써 반미와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소설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 선전 의도가 다분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남정현을 옹호하는 증인 중 한 명으로 평론가 이어령이 발언했다. 그가 「분지」를 변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병풍 속의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로 아는 사람은 놀라겠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듯이, 소설은 ‘신문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이 사회 현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설 「분지」는 일종의 “우화적인 수법으로 쓴 것이므로 친미도 반미도 아니”<sup>33)</sup>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문학적 자율성’을 주장한 그의 논리는 작품의 사상을 검열하는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을 테다. 문학과 현실을 분리함으로써 문학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고, 정치적인 검열이 이루어질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을 현실과 유리하여 「분지」가 “일종의 우화이므로 친미도 반미도 아니”라고 설명하는 방법은 문학이 그것의 반영적 성격으로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32) 소설 「분지」 필화 사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남정현문학전집3』(국학자료원, 2002.) 참고.

남정현의 반공법 위반혐의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33) 『남정현문학전집3』, 국학자료원, 2002, 287-288쪽.

이처럼 공소의 논리를 무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증인의 주장은 자체적으로 모순을 내포하는 듯하지만,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필화 사건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강제하는 사상검열이었다는 점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검열이 초래한 상황이 증인으로 나선 문학 평론가 스스로 문학의 저항적 가치를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만들었으니, 판결문의 ‘유죄판시’ 근거에서 남정현 소설의 사회적 의미를 끌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여 작품 「분지」는 “그 제목, 줄거리, 표현 등에 있어서 위 작품을 읽는 많은 독자 중 많은 사람에게 반미적 반정부적 감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계급의식을 고취할 요소가 다분”<sup>34)</sup>한 서사임이 공인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계급격차와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주요한 사회 문제임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필화사건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한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1967년 6월 28일 서울 형사 지방법원에서 작가 남정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작품 「분지」는 반공법에 저촉되며 작가는 유죄이지만, 그가 초범이라는 점과 ‘젊은 작가의 장래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렇듯 「분지」 필화 사건은 의심쩍은 구석이 많았으나, 독재와 검열의 시대에 문학작품에 가해진 일련의 외압이란 오히려 문학이 갖는 저항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역설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남정현의 소설은 반미서사, 저항서사, 민족서사를 대표하며 문학사의 정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김병걸은 남정현 소설의 행보를 ‘상황악에 대한 끈질긴 도전’으로 설명한다. 그는 19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식민지 시대’처럼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작가 남정현은 “시대의 중압에 의하여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가혹한 학대”를 받아온 대표적 작가이며, 시대의 불행과 그것에 대한 저항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저항 작가”인 것이다.<sup>35)</sup> 이처럼 시대적 억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대변하였다는 평을 받는 남정현 소설에서는 작가의 저항의식이 주인공의 입을 빌려 직접적으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필화를 겪은 소설 「분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견딜 수 없이 썩어빠진 국회여 정부여, 나 같은 것을 다 뺏으로 알고 붙잡고 늘어지려는 주변의 이 허기진 눈깔들을 보아라. 너희들은 도대체 뭣을 믿고 밤낮없이 주지육림 속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에만 부심하고 있는가. 나오라, 요정에서 호텔에서 관사에서,

34) 『남정현문학전집3』, 국학자료원, 2002, 293쪽.

35) 김병걸, 앞의 논문, 45쪽.

그리고 민중들의 선두에 서서 몸소 아스팔트에 배땀기를 깔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일대 찬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진정으로 한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원조를 해줄 놈들은 깃소리 없이 원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당장 지옥에다 대가리를 쳐 박으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피를 토하며 고꾸라질 용의는 없는가. 말하라, 말하라.”<sup>36)</sup>

위의 언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인공 홍만수가 “찬란한 데몬스트레이션을”을 꿈꾸는 이유는 민족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한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직설적이고 신랄한 남정현 소설 속 사회비판 의식은 ‘민족 주체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억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주체성의 회복을 염원하는 것은 한국의 타율적인 근대화라는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체제는 일본의 패전으로 해소되고, 해방을 맞이하여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소망은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좌절되었다. 뒤이어 냉전체제 속에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남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식민지와 그것과 결탁한 독재정치 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과 ‘해방’을 요구할 수 없었던 1960년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남정현에게 이러한 ‘민족적 주체성 상실’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정현 소설의 이러한 탈식민적 저항의식이 인물의 단순 발화를 넘어 소설 속에서 형상화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할 것이다. 남정현 소설의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대적 억압에 저항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남정현 소설의 ‘주체성 회복’이 형상화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주목된다. 이미정은 남정현 소설의 ‘반미’의식과 인물의 남성성 내면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남성 인물이 제국주의의 논리를 동일하게 모방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권력화하는 ‘이중성’을 내포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홍혜원은 남정현 소설의 서간체 형식 속 남성 주인공의 발화방식을 연구하여, 단성적이고 지배적인 발화방식이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형성하며 여성을 재식민화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역사를 베껴간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남정현 소설의 탈식민주의와 저항 의식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남성 주인공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남정현 소설에서 저항주체이자 작가의 비판의식의 견지한 초점 화자가 남성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남정현 소설의 ‘가족-민족 알레고리’ 속

36) 「분지」, 『남정현대표소설선집』, 실천문학사, 2004, 211쪽.



에서 남성은 억압에 저항하며 민족 주체성을 회복하는 주체가 되며, 여성은 순수하고 고결한 민족의 상징이자 동시에 민족의 수탈과 고결함의 부패를 체현하는 육체로 기능한다.

예를 들자면 「분지」의 경우 때문지 않은 깨끗한 조국의 상징인 어머니와 누이동생 분이는 미군에게 강간당하고 학대받음으로써 제국에 의한 민족의 수탈을 의미하게 되며, 「부주전상서」에서 이름 청자靑子가 의미하듯 푸르고 신성한 민족의 상징과 그것의 ‘재생산’을 도맡았어야 할 아내는 정부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에 동참함으로써 정치적 부패의 상징이 된다. 동시에 그들과 혈연관계이거나 부부관계를 맺는 남성 주인공들은, 당대 사회로부터 억압당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는 무능한 인물이면서도 그러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저항의 주체’로 여겨진다. 남정현 소설에서 모순적인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가는 다른 인물군을 바라보며 사유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남성 주인공인 것이다. 해방 이후 ‘주체성 회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이들의 몫으로 나타난다.

남정현 소설에서 저항주체인 남성 주인공이 보이는 이중성에 대한 비판은 남정현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여성 인물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분석과 연결되며, 동시에 전후소설에 드러난 ‘식민지 남성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정현 소설의 남성 인물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성 인물을 타자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지적은 남정현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며, 남정현 소설이 지닌 저항의식의 양상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저항서사·민족서사로 익히 알려진 남정현 소설의 의미를 되물으며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그것의 논리를 모방하는 행위가 탈식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하지만 남정현 소설에서 식민지 남성성이 단순히 ‘재생산’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제국주의적 논리를 내면화한 남성 인물의 모습이 텍스트 속에서 은폐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모순성이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설 텍스트가 작가 혹은 서술자의 의도를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배반하기도 하는 ‘텍스트의 자율성’ 문제를 시사한다. 앞서 ‘문학의 자율성’에 대하여 언급했듯이 문학의 언어는 신문의 언어와 달라서, 소설은 일차적으로 현실의 반영물로 기능하며 현실의 문제를 시사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온전한’ 현실의 ‘재현’이라고 볼 수 없다. 단어에서 이미 어폐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문학의 ‘반영’적 성격은 필연적으로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왜곡’은 ‘문학’과

‘현실’의 구분을 넘어 ‘작가, 혹은 서술자의 이데올로기’와 ‘텍스트’를 구분 짓기도 한다.

남정현 소설에서는 남성 인물의 이중성과 폭력성이 극적으로 과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과잉된 수행성은 남성 인물에 대한 독자의 동일시를 방해하고 그 모순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남정현 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우선 ‘가족-민족 알레고리’ 속에서의 이성 관계를 ‘구원’이 아닌 ‘파괴’로 그린 것을 기반으로 한다.<sup>37)</sup> 남정현 소설에서는 가족과 부부관계를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은폐하거나 ‘위안’과 ‘구원’의 이미지로 합리화하지 않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파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부주전상서」의 주인공 용달이 그가 죽인 아내 청자에 대한 태도를 내비치는 부분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을 하기 전 용달에게 있어 여자란 “일상 저의 슬픔과 허전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능히 채워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의 구원의 신”과 같은 성스럽고 완벽한 ‘성녀’였으나, 결혼 이후 “여인을 향한 그러한 황홀한 이미지”는 부서지고 만다. 아내를 더 이상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성녀’로 생각할 수 없는 용달은 그들의 부부관계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살해로 이어진다. 사건의 발단은 아내가 박정희 정부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루프 피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루프를 제거하라는 명령에 아내가 불복하자, 용달은 분노하여 아내를 때려눕히고 역지로 루프를 꺼내려다 그를 살해한다. 청자가 앞으로 탄 생활 자신의 손들, 그리고 아버지의 자손들을 살해하였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아버지, 분노의 독소란 참으로 강력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자제력을 잃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 그러면 내가 빼주겠다고 장담하고 나서 볼 것도 없이 청자를 때려눕히고 자궁 속 깊숙이 저의 손을 쑥 틀어넣어가지고는 무엇인가 잡히는 것을 한 움큼 알각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불행하게도 제가 잡은 것은 루프가 아니라 질 내의 근육이더군요.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청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아마 뺨은 모양입니다. 하반신에 흘러넘치는 피, 그런데 왜 그런지 저는

37) 임경순은 1960년대 소설에서 ‘성-여성’의 독특한 위상에 대해 설명한다. 최인호의 「광장」, 이호철의 「소시민」,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등과 같은 1960년대 소설에서 성-여성은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현실과 구분되는 구원의 공간을 그리지만, 남정현의 경우는 다르다고 분석한다. “성-여성은 당위의 시선으로 재단된 욕망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제로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이 도피와 초월의 근거로 삼았던 공간을 파괴함으로써 남정현은 작중의 인물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위안받을 수 있는 여지를 뿌리부터 파괴해버린다. (...) 성-여성을 이념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소설화시킨다는 점에서 남정현은 전형적인 1960년대 작가이지만 그 공간을 초월이 아닌 파괴의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동시대의 작가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다. (임경순, 앞의 논문, 104-105쪽.)

피로 보이지가 않더군요. 그것은 고름이었습시다. 청자의, 저의, 아니 정부의, 조국의, 좌우간 어디에선가 크게 끓은 부종(浮腫)이 팔팔 무너져내리는 누런 고름의 강하(江河)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통쾌하던지요. 시원했습니다. 저는 옷통을 벗고 공연히 들뜬 기분으로,

“죽어봐야 알지. 암, 죽어봐야 알고말고.”

그리고 시원하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답니다.<sup>38)</sup>

이는 억눌린 피식민 남성으로서의 절망감과 울분이 아내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수행으로 해소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죽은 아내에게서 흘러나온 피를 “정부의, 조국의, 좌우간 어디에선가 크게 끓은 부종”으로 겹쳐보며 통쾌함을 느끼는 용달의 모습을 독자가 ‘저항의 주체’로서 동일시하며 쾌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용달의 ‘실천’은 다분히 비약적이고, 또한 망상적이다. 즉 용달의 극단적인 수행방식은 독자와의 동일시를 방해하고 심리적 거리를 생성하게 되며, 저항주체로서의 남성 인물의 위상을 의심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비단 「부주전상서」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은 아니다.

「너는 뭐냐(1961)」의 주인공 관수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인물이다. 아내 신옥은 관수를 대신하여 집안의 경제를 책임진다. 신옥은 관수와 부부관계를 맺고있지만 성격으로 자유로우며 다른 남자와 놀이하듯이 연애를 한다. 하지만 관수는 아내의 연애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 관수에게는 아내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보다 아내의 연애 상대에게 소개받으러 가는 길에 입을 양복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양복을 사기 위해 아내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으며 구박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수는 아내 신옥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에게도 우스운 취급을 받는다. ‘예술에 대한 소양’도 없으며, 돈을 벌어도 없고, 집에서 책이나 들여다보며 밥을 축낸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관수 주변에서 그를 하대하는 인물군, 즉 아내 신옥과 식모 인숙과 주인집 아이들은 그 역시도 ‘우스운’ 인물들이다. 예를 들면 아내 신옥은 변소가 아닌 방에서 요강에 똥을 싸고, 식모 인숙의 입술이 붙어 터질 때까지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강요하는 등 ‘현대 생활의 모토인 위생학’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인숙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매일 요강을 씻으며 신옥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그 이유는 그저 신옥이 자신이 좋아하는 샹송 가수와 닮았기 때문이다. ‘예술’을 찬양하고 신봉하는 인숙 또한 대중문화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듯 보인다. 라디오 드라마에 나오는 배

38) 「부주전상서」, 앞의 책, 275-276쪽.

우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 것에만 전념하는 주인집 아이들 역시 어리석게 묘사되기는 마찬가지다. 이후 관수를 천대하던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관수의 곁을 떠나고, 관수 역시 집을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너는 뭐냐」의 관수는 다른 인물군이 표방하고 추구하는 ‘현대’, ‘미국’, ‘문명’, ‘출세’와는 다른 편에 있는 인물이다. 이들과 달리 관수는 가치가 전도된 세태를 의아하게 여기며 그것과 거리를 둔다. 이러한 거리감은 관수가 먹고 입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관수는 ‘미국화’와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숭배하고 세태에 휩쓸려가는 인물들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고로 관수는 다른 인물들에게 천대받는 듯 보이지만 역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른 인물들과 달리 사회와 불화하는 관수는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초점 화자가 된다.

그렇다면 ‘비판의 주체’로서의 관수는 어떻게 자신의 저항의식을 표현하는가? 그것은 소설의 말미 ‘시위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내 신옥도 떠나고, 집주인에게 이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관수는 ‘스스로 벌이라도 주는 심사’로 집을 나선다. 이후 그는 우연히 분노로 가득찬 군중들의 시위행렬을 마주하게 된다. “너만 살면 제일이냐!”, “사람 대접을 해라!”라는 민중의 외침을 들으며 그는 “드디어 자신도 버젓이 입장할 수 있는 인간의 광장”에 도착한 기분을 느낀다. 시위행렬 속에서 비로소 “인간을 위한 인간의 세상이 금시로 환하게 부각”된 것이다. 그것은 관수에게 있어 전도된 가치가 제 질서를 찾는 혁명의 순간이며, 억눌렸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때 세단차가 군중 틈을 급히 빠져나가고, 성난 군중들은 차의 유리창을 깨 버린다. 관수는 아내 신옥이 차 옆좌석에 있는 걸 보게 된다.

어찌된 셈인지 아내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킁소리 못하고 손을 짹짹 비비며 용서를 구하는 판이 아닌가. 관수는 무슨 위대한 진리라도 찾아낸 느낌으로 사뭇 감격하여 무릎을 쳤다.

너는 뭐냐!

이 한마디가 아내의 손을 비비게 할 만큼 그렇게 효과적인 언어의 구실을 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관수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다. 볼 것도 없이 관수는 아내의 어깨를 잡은 그 친구의 손을 뿌리치며 미안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말겠다고 장담하며 나섰다.

“너는 뭐냐?”

관수는 흡사 노래라도 부르듯 명랑하게 소리를 뿜으며 핑크색 네크리스가 달랑거리는 아내의 목살을 작업복의 사나이보다 더욱 짙 움켜잡았다. 예상대로 아내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숨이 답답한지 목을 흔들며 관수를 보자 눈물이 글썽했다. 이렇게 시시한 여인인줄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관수였다.<sup>39)</sup>

위의 인용문은 「너는 뭐냐」의 마지막 결말 부분으로, “동등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듯 느끼며 살아온 관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저항의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장면이다. 그는 성난 군중의 행렬 속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너는 뭐냐!”라고 외치며 자신의 울분이 해소됨을 느낀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와 ‘미국’에 대한 신봉을 넘어 “국민을 학대하는 일체의 건물과 일체의 제복”과도 일체화되는 듯 보이며, 관수는 그런 아내에게 호통을 치고 신체를 제압함으로써 줄곧 무시당해온 자신의 주권의식을 확인한다. 부부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주눅들게 했던 아내가 “이렇게 시시한 여인인줄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낄소리 못하고”, “질질 땅바닥에 끌려나오는” 아내, 한 명의 소시민의 멱살을 틀어잡는 것으로 ‘국민을 학대하는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다. 「너는 뭐냐」의 결말에서 주인공 관수의 저항의식과 나름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과시적인 멱살잡이로 울분이 분출되는 장면은 ‘적극적인 실천’으로서의 전망을 확보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러한 수행은 우스꽝스럽고 약간은 서글퍼보이기도 한다. 소설은 “국민을 학대하던 일체의 건물과 일체의 제복이 무너져내리는 저 빛나는 색채가 아침 햇살처럼 아주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라는 풍자적 서술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남정현 소설의 저항 주체인 남성 주인공의 ‘실천’은 그 구체적인 방식과 폭력의 수위가 다르게 나타날 뿐, 여성을 객체 삼아 자신의 지배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저항의 전망을 구성할 수 없는 파괴성을 드러내며 또한 폭력의 수위만큼 비약적인 것이다. 남정현 소설에서는 이러한 식민지 남성성의 욕망의 메커니즘, 즉 여성을 식민화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욕망과 무의식이 그의 과잉적인 수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설되기도 한다.

1963년 발표된 소설 「광태」의 ‘나’가 어째서 광포해지고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는지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라는 시기에 대한 정보밖에 없다. 반독재와 자유를 외쳤던 1960년 4·19혁명의 희망을 꽃피워 볼 여유도 없이 발발한 군사정변은 ‘나’의 자유에 대한 희망을 꺾고 그에게 극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선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

39) 「너는 뭐냐」, 앞의 책, 491-492쪽.

사 쿠데타는 ‘나’의 ‘선하던 성미’를 변모시키며 그를 이른바 ‘광태’로 이끌었던 것이다. ‘나’의 절망감과 불안감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나’는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난처해하고 절망하지만 아내의 신체를 비롯한 가재도구를 파괴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겁에 질려 식칼을 허리춤에 채비하고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식칼을 보기만 하는 날이면 내 주먹은 거의 환장할 정도로 신이 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칼이 ‘나’의 호전성을 더욱 고취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식칼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항했던 것과 같은 저항의식이 샘솟기 때문이다. 그러한 저항의식은 조상들이 외세를 무찔렀던 것과 같이 “나의 이 모가지라도 말이지 당신 맘대로 푹 찢러보라”라는 열등감 어린 종용과 아내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공연한 욕설과 함께 내 주먹은 흡사 민중을 억압하는 어느 독재자의 숨통을 조이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지아의 턱과 뺨과 그리고 가슴을 향하여 돌격하는 것이었다. 40)

이러한 ‘나’의 행위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국가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그의 주먹은 “민중을 억압하는 어느 독재자의 숨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지아의 턱과 뺨과 그리고 가슴”을 향하며 굴절된다. 억압적인 권력 아래에서 ‘죽어지내야만’하는 ‘나’는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는 순간에야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폭력 행위가 끝나고 찾아오는 허전함과 서러움을 견딜 수 없다. ‘나’가 자기기만 속에서 괴로워하는 동안 ‘나’의 폭력을 감당해온 아내 지아의 몸은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

아닌게 아니라 지아의 육체는 누가 보아도 좀 서운하리만큼 한군데도 성한 자리가 보존되어 있질 않는 것이다. 멀리 서부에서 자라난 코 큰 자들이 판을 치고 간 그런 어떤 식민지와 같이 어찌보면 지아의 몸은 항시 눈물이 날 지경으로 심한 상처 속에 머리카락만을 내놓고 파묻혀버린 것 같은 그렇게 기이한 인상만을 주는 것이다.

(...)

‘몸의 원형을 빼앗긴 지아.’41)

40) 「광태」, 앞의 책, 362-363쪽.

41) 「광태」, 앞의 책, 356쪽.

지속적으로 학대당하여 형체가 훼손된 아내의 몸을 “멀리 서부에서 자라난 코 큰 자들이 판을 치고 간 그런 어떤 식민지”로 비유하는 ‘나’의 서술은 본인이 스스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남성 주체 스스로 지배와 폭력에 의한 민족의 훼손을 때려 만들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나’가 아내를 구타하며 식민지 남성성의 폭력성을 드러내듯이, 아내 지아 또한 다른 서사적 맥락과 연결되지 않은 채 오로지 남편에게 구타당하여 훼손당하는 육체로서 기능한다.<sup>42)</sup> 이는 ‘가부장 남편-아내’의 ‘제국주의-식민지’에 대한 상징적 체현이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남성 인물과 국가주의적 지배논리의 사이의 동일시다.

‘나’의 폭력성, 그의 ‘민첩한 주먹’이 보여주는 ‘훈련된 몸’으로서의 호전적인 남성성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군사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명분이기도 했다. 박정희는 고대사에서 신라의 화랑과 고구려의 기마병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소생’하고, 이순신과 김유신 장군 등을 위인으로 추대하여 동상을 만드는 등 ‘민족’의 역사로부터 계승된 ‘전사’로서의 남성성을 군사정부의 정당성과 홍보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렇듯 “남성 전사를 한국사의 적법한 주체로 구성하려는 군국주의적 경향”<sup>43)</sup>은 군사 독재 지배 아래에서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주인공 ‘나’는 자신의 멈출 수 없는 주먹질과 호전성을 “조국이 허락해 준 단 하나의 ‘자유’”라고 표현한다. ‘나’는 군부정권의 지배 논리 속의 군사주의적 남성성에 호명 당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훈련된 몸’과 ‘주먹’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죽여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 ‘나’는 지아를 끔찍하게 구타

42) 대표적으로 「부주전상서」의 아내 청자가 ‘대학까지 나온 여자’이며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는 인물이라는 점, 「너는뭐냐」의 아내 신옥이 직장 생활을 하며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청자와 신옥은 근대 초 남성중심적 담론이 생성한 ‘신여성’의 표본이기도 하다. 당대의 남자와 똑같이 공부하고 집 밖에서 경제생활을 하며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여성’은 곧 부정적으로 그려지며 처단의 대상이 된다. 청자는 정부의 부패와 연결되고, 신옥은 무분별한 ‘현대화’의 신봉자로 그려지며 두 여성 인물은 소설의 말미 남편에 의해 제압당한다. 그 점에서 「광태」의 아내 지아는 다른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도 연결되지 않은 채 학대당하는 육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물론 ‘신여성’이 가진 주체성이 남성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위협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남성성’의 원인 중 하나로 ‘식민지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을 들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소설 「광태」에서는 오히려 남성 인물의 수행이 보다 부각되는 면모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뚜렷한 서사적 명분 없이 아내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음을 남편 스스로 폭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 「광태」의 부부관계에서 ‘식민지 남성성’의 가해-피해의 역학이 더욱 도식적으로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43) 문승숙, 「민족 공동체 만들기」,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68-69쪽, 참조.

하지만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폭력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나’가 파괴적인 방식으로라도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폭력을 행사할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흡사 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만신창이가 된 지아의 몸을 직접 치료해주면서 아내에게 차라리 자신을 떠나 달라고 호소하지만, 아마 아내가 정말로 그를 떠나 도망을 간다면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타인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만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아내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신의 미력한 저항행위를 고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자신에게 형형한 복수심을 드러낼 때 ‘나’가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기대감과 자긍심이다. ‘나’는 억압당하여 주체성을 상실한 피식민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을 아내에게 투사하여 해소한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의 원한과 분노를 확인함으로써 국가에 대항하고자 하는 저항의식을 수혈받고 있다. 그것은 아내의 몸을 직접 망가뜨리면서 “내 몸을 이 지경으로 파괴해놓은 원수”를 갚아야 하는 지아의 원한에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수”를 찾아 복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울분을 겹쳐보며 이루어진다. 저항의식조차 동기부여를 받아야 하는 주체의 극심한 한계적 인식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남성성의 메커니즘이 반증하는 것은 그 모순적인 저항의식의 실현 불가능성일 뿐이다. ‘나’의 병리적인 수행의 반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파괴적 전망이기 때문이다. 남성 인물과 국가주의적 지배논리 사이의 동일시는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파쇼체제가 무너지듯 ‘나’를 향하여 통쾌하게 무너져내리는” 파국적 결말을 상상하게 만든다. 소설의 말미 지아는 폭력을 견디다 못하여 훼손된 알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밖으로 나가려 한다. ‘나’는 지아를 필사적으로 붙잡는다.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고 ‘원수를 갚으라’며 소리치는 사이 ‘나’는 쓰러지고 시야는 휘청거린다. 엉망진창이 된 ‘나’와 지아의 몸 위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넘어…….”라는 노랫소리, 즉 ‘군가’만이 몽롱하게 들려오는 결말로 소설은 끝이 난다.

이처럼 「광태」는 마치 남편이 폭력적인 권력층의 역할을 맡고, 아내가 식민지를 체현하는 역할을 맡은 한 편의 연극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부장 남편과 아내’와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도식이 너무나 명확하며, 남성 인물이 자신의 폭력적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인지한 채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아의 육체와 나의 주먹이 동시에 곤죽이 되어가는 처절한 모습이 커다랗게 클로즈업되어 오는 순간”을 인식하는



주인공 ‘나’의 서술에서 이러한 연출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이렇듯 「광태」는 남성 인물의 과잉적인 수행으로 인하여 ‘저항의 주체’인 남성 인물과 독자와의 감정이입을 방해하고 미적 거리를 생성하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극적인 연출은 남성 주체의 일방적인 수행과 서술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기만적 상황에 고착된 ‘나’는 결국 광기에 빠져 미쳐버리고, 동시에 과시적이고 망상적인 서술로 자신의 병리를 전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인물은 두 명이지만 이 극은 한 인물의 망상으로 묘사되는 일인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남성 인물은 자신의 ‘광태狂態’를 상연한다. 소설 「광태」는 다름이 아니라 식민지 남성성의 우화인 것이다.

이처럼 남정현 소설에서 ‘비판의 주체’인 남성 주인공의 저항적 실천이 여성 인물을 객체로 삼는 젠더-과잉수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시사적이다.<sup>44)</sup> 이와 같은 젠더-과잉수행과 남성 인물의 자기파괴적인 결말은 결과적으로 ‘주체성 회복’을 시도하는 남성 주체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남성 인물의 젠더-과잉수행은 이러한 시대적 불안감과 절망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성 회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남성 인물의 ‘식민지 남성성’ 속에서 좌절과 실패로 수렴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정현 소설은 남성 인물의 과시적인 수행으로 인하여 주체의 절망감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주체성 없음’을 폭로하게 된다.

44) 남정현 소설 속 저항의식의 ‘실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백낙청은 “그의 작품에서 간간히 번뜩이는 기발한 착상과 그 거리낌 없는 독설에 끌리면서도 (….) 너무나 장황하고 정리안된 사설에 차 있다는 느낌이였다 (….) 남씨의 경우 그 저항행위가 너무 표면적이고 즉흥적인 주장에 그쳤기 때문에 실속 있는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저항문학의 전망』, 『조선일보』, 1965.7.13.)

임현영 또한 “그는 이야기 형식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호소력이 강한 편이나 직접 하소연하는 등의 걸모습을 자주 취한다 (….) 그러나 지나친 사변적 요설 때문에 주제의식을 흐트려 버리고 있다는 점이 독자들의 입장에서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승리자의 울음과 패배자의 웃음』, 『분지』, 한겨레, 1990, 371쪽.)

또한 장영우는 “『분지』의 흥만수가 미국 여성을 겁탈한 것, 「부주전상서」의 주인공이 아내를 살해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통곡의 현실, 고소의 미학-남정현론』, 『남정현문학전집3』, 국학자료원, 2004, 80쪽.)

요약하자면 남정현 소설의 저항의식은 대체로 인물의 표면적인 주장과 사변으로 발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인물의 적극적인 행위가 부재하여 저항의 전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남정현 소설의 젠더-과잉수행성이 초래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 2. 정신병리적 풍자와 희화화

앞서 남정현 소설에서 저항 주체가 ‘실천’을 드러내는 부분이 남성 인물이 여성 인물을 객체 삼아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젠더-과잉수행으로 드러남을 밝혔다. 극단적이고 과시적인 수행은 독자로 하여금 인물과의 동일시를 방해하고 심리적·미적 거리를 생성한다. 또한 그러한 과잉수행이 ‘식민지 남성성’의 이중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 남성성의 파괴성과 실현 불가능성이다. 이렇듯 남성 인물의 젠더-과잉수행은 피식민 남성의 ‘주체성 없음’과 주체의 위기의식을 스스로 폭로하게 된다.

저항 주체인 남성인물이 자신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방식이 젠더-과잉수행으로 수렴된다는 점은 다소 우스꽝스럽다. 실제로 남정현 소설에서는 저항 주체인 남성인물에게 향해야 할 동일시가 파괴되는데, 이는 인물의 과잉적인 수행과 더불어 인물의 망상적 발화와 실천에 근거한다. 이를 남정현 소설 특유의 ‘정신병리적 풍자’로 명명할 수 있다. 남정현 소설의 인물들은 모두 불안, 강박증, 노출증, 편집증, 호분증 등의 신경증 증상을 보인다.<sup>45)</sup> 더불어 저항 주체인 남성 주인공 또한 신경증의 증세를 보이며 희화화되기는 마찬가지이다.

풍자(諷刺, Satire)의 어원은 ‘가득히 담긴 접시’라는 뜻의 라틴어 ‘lanx satura’에서 유래한다.<sup>46)</sup> 단어의 어원이 ‘가득히 담겨 있다’라는 뜻인 것처럼 풍자는 대상의 특성을 ‘과장’하여 그 속성을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기법이다. 풍자소설에서는 인물의 특성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하나의 ‘캐리커처’로 만든 뒤, 희화화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을 취한다.

풍자가 대상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상의 경우,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은 빈번하게 웃음거리가 된다. 약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단순한 공격과 조롱, 이미지의 재생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풍자의 ‘공격적 웃음’은 강자를 희화화하여 그 힘을 탈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대상이 표방하는 가치, 대상이 가진 권력의 힘을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써 그것의 무게를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풍자문학이 발달한 시기는 사회가 이원화되어 갈등을 일으키던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풍자는 부조리한

45) 남정현 소설 속 인물들의 신경증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김형중, 「남정현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시론-풍자와 정신병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2005. 참고.

46)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인문학용어대사전』, 국학자료원, 2018, 1720쪽.

권력, 가치관, 체제를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한 문학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즉, 풍자의 활시위는 쉽게 우스워질 수 없는 권력층을 향했을 때 그 비판적 의미를 달성할 수 있으며, 풍자의 주요한 기능은 권력의 가면을 벗기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소설에서는 풍자 대상과의 심리적·미적거리가 전제되며 그 거리는 인물과의 동일시를 방해하는 데 기여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소설 속 풍자의 주체는 보다 긍정적 인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덕적·지적으로 열등한 대상에 대한 공격적 웃음이라는 점에서 풍자의 주체는 그 대상과는 다른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풍자 주체와 대상의 상이한 위상에서 풍자의 전망과 이상에 대한 상상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그런 의미에서, 풍자 소설에서 독자와 동일시되는 ‘비판 주체’와 독자와의 거리를 전제하는 ‘비판 대상’ 사이의 구별은 핵심적인 변별점이 된다.

「분지」의 주인공 홍만수는 미군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죄목으로 펜타곤 당국의 체포를 피해 산에 고립된 처지이다. 「분지」는 산속에서 미군의 미사일 폭격을 기다리면서 오래전 죽은 어머니에게 지금까지의 사정을 호소·고백하는 서간체 형식의 소설이다. 하지만 홍만수는 어머니에게 자신은 그리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인류이며 천륜을 다 떠들어보아도 한 인간이 그렇게 시시하게 죽는 법은 없다고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격노할 것입니다. 뿐더러 저의 10대조인 홍길동 각하를 차후에 제가 무슨 면목으로 알현하겠습니까.

(...)

활빈당의 수령으로서 호풍환우하는 둔갑술이며 신출귀몰하는 도술로써 썩고 병든 조정의 무리들을 혼비백산케 하신 제 선조인 홍길동의 비방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후의 당신이나마 저도 한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으로 저의 가슴은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기대하여주십시오, 어머니.<sup>49)</sup>

홍만수가 향미산 전체를 날려버리려는 미사일 폭격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홍길동의 제10대손이며 동시에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노아

4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앞의 책, 1721쪽, 참고.

48) 이러한 풍자소설의 사회비판적 의미, 즉 사회의 이상과 전망을 상상하는 힘에 대해서 덧붙인다.

“풍자소설의 과장과 왜곡은 작가의 이상에의 추동력에 의한 것이며, 희화화된 형상 속에는 이미 이상을 지향하는 비판적 힘이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현실의 부정성을 보다 왜곡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써, 대상의 윤리적·인식적 약점을 공격하고, 작가 자신은 이상으로 나아가는 승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풍자적 희화화가 이상과의 연관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삶을 역동적으로 반영함을 뜻한다.”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321쪽.)

49) 「분지」, 앞의 책, 193-194쪽.

의 홍수”가 덮쳐와도 그 방주에 제일 먼저 탑승할 사람이며, “활빈당의 수령”으로서 도술을 부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인 ‘홍길동’의 저항정신을 이어받은 ‘민족 영웅’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망상적 서술은 소설의 말미 폭격이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 “이제 곧 저는 태극의 무늬로 아롱진 이 러닝셔츠를 찢어 한 폭의 찬란한 새 깃발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잡아타고 바다를 건너야지요. 그리하여 제가 맛본 그 위대한 대륙에 누워 있는 우윳빛 피부의 그 윤이 자르르 흐르는 여인들의 배꼽 위에 제가 만든 이 한 폭의 황홀한 깃발을 성심껏 꽂아놓을 결심인 것”<sup>50)</sup>이라는 최후의 언설에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식민지배와 억압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성 인물의 저항의식은 자신의 신분을 ‘신’, ‘예수’, ‘영웅’, ‘선각자’로 상승시키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세주 망상’으로 드러난다. 편집증은 내용에 따라서 과대망상, 추적망상, 애정 망상증(과대 성욕증), 질투 망상 등으로 나타나는데,<sup>51)</sup> 남정현 소설에서는 편집증의 형식 중 하나인 과대망상이 저항 주체인 남성 주인공의 ‘구세주 망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남정현 소설의 저항적인 민족주체가 망상 속에서 현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개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망상적 서술은 굉장한 확신에 차 있는 듯 보인다.

아버지에게 올리는 편지를 쓰는 「부주전상서(父主前上書)」의 용달 역시 ‘현실과 픽션’의 위치가 전도된 세계 속에서 그러한 모순을 인식한 유일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선각자’로서의 구세주 망상과 이어진다. 편지가 끝나갈 때쯤 용달은 아버지에게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눈곱만한 선의(善意)”라도 생기겠냐며 빈정거린다. 현실을 변혁시킬 벼락이라도 떨어지길 바란다면 그냥 상황을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달은 “벼락은 당신이 만드셔야 합니다. 삽으로 톱으로 낫으로 망치로 당신들이 손수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sup>52)</sup>라는 가르침을 처방하는 개도의 주체이다.

하지만 구세주는 박해를 받기 마련이어서, 용달은 짐승취급을 받으며 창경원의 동물원에 갇혀 있는 신세다. 용달의 재판관을 맡은 판사 왈, “제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귀라 하더라도 그가 일단 신성한 법정에서 서면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법”<sup>53)</sup>이라지만 용달은 전혀 그런 ‘인간다운 징후’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50) 「분지」, 앞의 책, 218쪽.

51) 지그문트 프로이트, 홍혜경·임흥빈 역, 『정신분석강의(하)』, 열린책들, 1997, 599쪽.

52) 「부주전상서」, 앞의 책, 279쪽.

러한 살인자 용달의 태연함은 그가 편집증자라는 근거가 된다. 용달에게서 ‘망상들의 논리적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적 신경증에 속하는 편집증은 리비도가 ‘자가 성애기’에 고착된 경우 발생하는 신경증이다. 나르시시즘적 신경증의 범주에는 편집증(망상), 조발성 치매, 우울증이 속한다. 편집증과 조발성 치매 환자는 모두 리비도의 나르시시즘적 퇴행이 원인이며 망상증세를 보인다. 여기서 편집증과 조발성 치매의 차이는 바로 그 망상의 양상에 있다. 조발성 치매의 망상이 분열된 상태로 나타난다면 편집증의 경우는 망상들이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편집증에서는 재건축이 승리하지만 조발성 치매에서는 억압이 승리한다”<sup>54)</sup>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편집증자의 망상은 그 망상들이 분열된 상태로 있지 않고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적 신경증은 상담으로 치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가성애기’에 리비도가 고착되어서 상담자(대상)와의 전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증자는 자기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편집증자의 치료는 이러한 ‘망상들의 체계’, 즉 망상들의 논리적 인과관계의 설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up>55)</sup>

제 아무리 허망한 이야기를 다루는 소위 그 괴기소설의 작가라 하더라도 그는 감히 일국의 조폐공사에서 위조지폐를 찍으려니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애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드욱 그어 분신자살을 가장시킨 어느 청년의 딱한 이야기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겨우 소년이 단 몇 푼의 위자료를 바라고 달려오는 자동차에 몸을 던지는 이렇듯이 아슬아슬한 장면은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원 어림없는 말씀이십니다.

현실에 참패한 픽션.

픽션을 제압한 현실.

이것이 곧 카오스의 세계요, 또한 이 땅의 생생한 리얼리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소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젠 분명히 현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대체되어 버린 그러한 토지 위에서 우리들은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sup>56)</sup>

53) 「부주전상서」, 앞의 책, 257쪽.

5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명희 역, 「편집증 환자 쉬레버-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 『늑대 인간』, 열린책들, 1996, 363쪽.

55) 김형중, 『소설과 정신분석』, 푸른사상, 2003, 93쪽. 참고.

56) 「부주전상서」, 앞의 책, 254-255쪽.

용달은 소설가들도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태연히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한다. 이는 ‘현실’과 ‘픽션’의 전도된 인식으로 이어진다. 용달이 법정에서 태연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릿속에서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현실과 픽션’의 위치가 전환되었듯이 ‘인간과 짐승’의 위치도 전도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인들이 ‘짐승’ 취급을 하는 자신의 행위 또한 ‘인간다움’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용달은 자신의 살인행위가 “당연히 그냥 인간이 할 일을 해치웠다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재판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었다고 아버지에게 고백한다. 이러한 관점은 아들의 살인에 ‘하늘이 무너진 양’ 충격을 받은 아버지를 향해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보다 더한 믿을 수 없는 일도 곳곳이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라고 설득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이 세운 정부를 총으로 뒤엎으며 잘했다고 떠들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습시다. 어디서 추썩 기어나와가지고는 나라를 팔아먹은 제이의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운운하면서 방약무인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친구가 있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무리 자랑스럽고 소중한 당신의 며느리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 흔한 계집년이 하나 죽었다고 해서 무너질 하늘이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sup>57)</sup>

용달은 저항의식의 담지자로서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용달의 비판 의식은 “요새 애들은 왜 그런지 북한엔 뽕 돋친 공산당만이 산다고만 알지, 사람이 산다는 사실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발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용달은 스스로 자신의 비판을 사변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 정치적 부조리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뚜렷한 저항감을 표하는 용달의 비판 의식은 그의 망상적 체계 속에서 하나의 피해망상으로 변모하며,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던 하늘이 “흔한 계집년 하나 죽었다고”해서 무너지겠냐는 편집증적 합리화의 근거로 이용된다. 자신이 수감된 것이 창경원의 뒷공작일 것이라는 의심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양심이 없는 것이 양심”이라는 용달의 말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단순한 방어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아내 청자에 대한 태도와 이어진다. 결혼을 하기 전 용달에게 있어 여자란 성

57) 「부주전상서」, 앞의 책, 258쪽.

스럽고 완벽한 ‘성녀’였으나, 결혼 이후 “여인을 향한 그러한 황홀한 이미지”는 부서지고 만다. 그 이유는 아내 청자의 핸드백에서 기저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용달은 처음엔 그것이 “우리 둘 사이에서 탄생할 제2세를 위하여 미리 마련해놓은 기저귀”인 줄 알았지만 청자가 그것을 실제로 착용하는 걸 목격한 것이다.

물론 이 기저귀는 ‘생리대’를 말한다. 기저귀와 생리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용달의 지적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용달은 ‘대학을 나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자가 “좌우간 인간이 되기에는 무엇인가가 좀 확실히 미달한다”라고 판단하며 “청자가 무슨 말을 하건 한 번도 사람의 말답게 신용을 해본 적 없다”라고 덧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지만 성인들의 세계에서 통하는 것이므로, “아직 기저귀를 버리지 않은 여인들”은 ‘성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육법전서’의 서두에는 “반드시, 미안하지만 이 법률은 여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착상을 하기에 이른다. 용달에게 청자, 그리고 아내로 대표되는 여자란 ‘법인’도 ‘성인’도 아닌 ‘인간’ 미달한 무엇이다.

이러한 멸시적인 태도는 아내가 피임을 했음을 알고 피임기구를 꺼내려다 그를 살해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진다. 용달은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를 ‘정부와 조국의 고름’으로 인식하며 통쾌함을 느낀다. 억눌린 피식민 남성으로서의 절망감과 울분이 아내를 객체로 삼은 젠더-과잉수행으로 해소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는 망상 속에서의 혁명이자 병리적 수행에 불과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그 행위를 ‘정치적 부패’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겹쳐보는 용달의 비약은 앞서 살펴본 ‘망상들의 논리적 체계’의 결과물이자 혹은 첫 단추로 보인다. ‘부주전상서’는 수감된 이후에 써내려간 편지, 즉 기억의 재서술 과정에서 이미 편집증적 합리화를 거친 편지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주전상서」에서는 주인공이 보여준 사회비판의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병리적인 징후 속에서 풍자 주체로서의 일관성과 지적·도덕적 위상이 탈각되고 만다.

소설 「분지」에서도 남성 주인공의 정신적 분열과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망상적 체계를 찾아볼 수 있다. 독립군이었으나 일찍이 집을 떠나 영영 보지 못한 아버지 대신 홍길동의 후손이라는 영광을 계승한 홍만수의 구세주 망상 또한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은폐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인칭 화자인 홍만수의 망상적 서술은 소설 전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홍만수의 분열을 보여주는 서사적 근거를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 어머니가 미군에게 강간당하여 자살한 것, 그리고 어머니가 실성하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들여다보게 한 경험이 촉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경

험은 흥만수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 그를 ‘몽유병자’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했다. 그는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머니를 회상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날’의 기억뿐이다. 그는 어머니와의 경험으로 인하여 “한 인간이 미친다는 사실이 그 얼마나 더럽고 창피스러우며 또한 무서운 노릇이던가”를 알게 되어 “오로지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꼭 잊어야 했다고 설명한다.

둘째,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와 부패한 정권에 대하여 강력한 반감과 저항의식을 가진 흥만수는 미군의 현지처가 된 동생 분이와 만난 이후로 그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양기’를 매부로 삼아 ‘양기 물건 장사’에 종사하는 그를 ‘특혜족’으로 인식한 친구들이 ‘미국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비굴하게 부탁할 때마다 그는 “무엇인가 통과한 그러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울분으로 하여 절로 주먹이 쥐어지면서 청중도 없는데 공연히 열변을 토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이다.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의존하며 생계를 잇는 상황에 대한 모종의 우월감과 수치심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는 스피드 상사의 아내 비취 여사에 대한 흥만수의 성적인 숭배와, 비취 여사를 겁탈한 건에 대한 흥만수의 합리화에 근거한다. 스피드 상사에게 동생 분이가 학대를 당하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본처와 몸이 달라서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흥만수는 누이가 당하는 폭력을 안타깝다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 미국 여성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을 키워가며 곧이어 육체의 환상 속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크나큰 의문에 싸이어 안절부절 못했었지요. 그것은 스피드 상사가 항상 본국에 있다고 자랑하는 미세스 스피드의 하반신에 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의 육체는, 아니 밑구멍의 구조며 그 형태는 어떨까. 좁을까 넓을까, 그리고 그 빛깔이며 위치는. 좌우간 한번 속 시원하게 떠들어보고 의문을 풀어야만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 왕관 비슷한 모자를 쓰고 성조기 무늬의 화려한 백을 든 비취 여사의 그 쪽 뺨은 각선은 실로 절경이더군요. 순간 저는 탄복했습니다.<sup>58)</sup>

이렇듯 환상에 빠져 제국 여성의 몸을 숭배하는 흥만수의 모습에서 제국 여성의 몸과 피식민 여성의 몸에 위계를 설정하는 제국주의 남성담론과의 동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 스피드 상사가 본처의 몸을 자랑하며 누이의 몸을 학대하는 논리, 즉 미군

58) 「분지」, 앞의 책, 213쪽.



상사가 내세우는 폭력의 논리를 수용하게 된 홍만수의 분열 감각은 인용문과 같은 과장된 언사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체의 분열은 “인간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우월함’과 그것을 표방하는 제국주의 논리를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홍만수의 성적 욕망은 그의 망상적 인과관계 속에서 여사의 몸을 취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생성하게 된다.

홍만수는 ‘조국의 산하’를 구경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향미산’에 비취여사를 유인하고, 공손한 태도로 “반만년의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여사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며 옷을 벗어줘야겠다고 말한다. 매일 밤 폭력을 당하는 누이의 몸과 미국 여성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 후 동생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이고 지극히 가정적인 논리 속에서 홍만수는 비취여사의 신체를 제압하여 성적 욕망을 해소한다.

이는 남정현 소설 속 남성 인물의 울분이 여성 인물을 객체로 삼아 그에게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해소되는 젠더-과잉수행의 또 다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환상적인’ 행위가 끝난 후 홍만수는 “이른바 인간의 천국이라는 미국을 한 아름에 안아본 성실은 그 벽찬 감동으로 하여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국주의 논리와 동일시한 주체의 분열 감각은 어떻게든 다시 봉합되어야 할 것이다. 특이한 점은 홍만수가 도망가는 비취여사의 뒷모습에서 어머니를 비취본다는 것이다.

“헬프 미! 헬프 미!”

위태로운 비명과 함께 정신없이 산을 뛰어내려가더군요. 왜 저럴까. 헝클어진 머리며 찢어진 옷. 달아나는 여사의 뒷모습은 언젠가 당신이 발광하여 돌아오시던 날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sup>59)</sup>

홍만수가 비취여사와 어머니를 겹쳐보는 것은 그의 행위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당한 강간을 재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것처럼 느끼게끔 한다. 홍만수는 도망가는 비취여사의 뒷모습에서 어머니를 겹쳐본 이후에야 어머니의 ‘음부’가 아닌 ‘자애로운 미소’를 떠올릴 수 있었다. 비취여사를 취하는 행위 속에서 홍만수의 ‘한恨’이 풀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소된 것은 어머니와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항심과 억울함일 것이다. 이름부터 위선적인 ‘향미산向美山’에

59) 「분지」, 앞의 책, 215쪽.

서 미국에게 강간을 상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머니를 대신한 복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홍만수가 강간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당신을 강간하여 저승으로 인솔까지 한, 어떤 코 큰 친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머니의 경험을 재현하고 복수하는 데 있어 홍만수가 ‘강간범’이 되며, 그 행위에 미국 여성의 신체를 제압하여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뒤틀린 지배욕구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퍼포먼스’는 다른 사적인 목적이 아닌 미국을 대상으로 한 민족 주체의 저항적 실천의 일환이어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민족 영웅인 ‘홍길동’의 자손으로서의 ‘구세주 망상’이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홍만수의 구세주 망상은 어머니를 이해하고자 하는 아들의 노력과 제국에 복수하고자 하는 영웅의식을 표방하여, 비취 여사를 성적으로 취함으로써 제국의 논리를 모방하게 된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를 망상적 체계 속에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합리화의 대상은 물론 홍만수 자신과 편지의 수령인인 어머니이다. 그는 상상 속의 어머니에게 ‘그것은 강간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홍길동의 자손인 나 만수란 녀석이 아무렴 그따위 못된 짓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홍만수의 식민지 남성성과 젠더-과잉수행이 자신의 내적모순 속에서 구세주 망상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주전상서」와 「분지」가 대타자인 아버지·어머니에게 자신의 일을 고하는 서간체 형식의 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발화는 소설 속에서 직접인용, 혹은 간접인용으로 나타나며 주인공은 그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다. 하지만 「부주전상서」의 후반부에 “아 아버지. 이제 막 들어오시는군요. 부득이 붓을 놓아야 겠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용달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인물이지만 지금껏 이루어진 용달과의 대화에 참여한 적이 없다. 「분지」의 어머니 역시 홍만수가 어렸을 적 죽은 인물로 그의 말에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증 환자로 유명한 ‘쉬레버 판사’의 기록물에서 “그(쉬레버)는 그에게만 신성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인간보다 비범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며, 수년간 “자기와 대화를 나눈 목소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sup>60)</sup>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을 신성하고 특별한 존재로 설정

60) 지그문트 프로이트, 「편집증 환자 쉬레버-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 『늑대인간』, 열린책들, 1996, 291쪽.

하는 편집증자의 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찰망상, 즉 ‘내면의 목소리’와의 대화란 편집증자가 또 다른 자신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망상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두 서간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논리적 체계 속으로 타인의 발화와 의도를 모두 포섭해버리며 대화를 이끌어가곤 한다. 「부주전상서」와 「분지」에서 아버지·어머니가 때론 자신에게 화를 내고 타박해도 곧바로 반박하며 설득하는 대화의 단성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이 또한 ‘내면의 목소리’와의 대화, 그러나 다분히 일방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망상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관찰하는 나(초자아)’와 ‘관찰당하는 나(자아)’로 분열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서간체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두 서간체 소설은 일종의 자기치료이자, 대타자인 아버지·어머니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득하기 위한 편지이며, 동시에 망상의 인과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편집증적 체계화의 과정이다.

하지만 편집증의 생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자아’의 영향력은 종국에 편집증자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도록 만들고 만다. 「부주전상서」의 용달이 짐승 취급을 받으며 창경원 동물원에 수감되는 결말과 「분지」의 흥만수가 미군의 미사일 폭격을 받게 되는 결말은 편집증자의 자기징벌로 이야기가 마무리된 사례이다. 이렇듯 저항 주체인 남성 인물의 망상적인 실천이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반복적인 서사는 소설 「기상도」의 도입부에서 축약되어 나타나는 듯 보인다.

소설 「기상도」의 주인공 ‘철’의 망상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알은 터무니없이 커지고 모가지는 흔들릴 정도로 길게 처진” 기상천외한 모습의 ‘백의의 무리’로 형상화되는데, 이러한 ‘백의의 무리’는 물론 흰 옷을 입고 흰 것을 숭상했다는 전통적인 ‘백의민족’을 일컫는다. 하지만 외세의 침략과 부패한 지배층 사이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광활한 인간의 광장”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유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 “형세가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며칠이 안가서 애드벌름처럼 사람의 모가지는 하늘로 길게 솟구치고 대갈통만이 공중에서 물결”치고 있겠다고 생각한 철의 앞에 늘어난 모가지들이 비명을 지르자, 철은 긴박하게 자신이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신(神)이 아니어도 좋다. 좌우간 이런 계제엔 인간의 성대를 이용해서라도 한마디 무슨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하겠다는 절박한 느낌이 철의 목구멍을 자극한 것이다.

“여러분! 어서 날 쳐다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

분들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방금 하늘 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철은 힘차게 손바닥을 펴 들었다.<sup>61)</sup>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 신이 아니어도 좋으니, 인간의 성대로라도 구원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예수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방금 하늘 나라에서 내려”왔다고 외치며 철은 백의의 모가지들에게 ‘여권’을 제시한다. 여권이 있으면 문이 열리고,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소설 「기상도」의 첫 문장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마태복음 7:7)로 시작되는데, “그러나 미안하게도 두드려서 열릴 정도의 그렇게 허약한 문은 이미 지상에선 퇴장해 버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철은 스스로 재림 예수가 됨으로써 ‘문’을 열 수 있는 ‘여권’을 민족에게 발급하고자 한다. 그렇게 철은 ‘백의의 무리’에게 희망의 탈출구가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처지에 불과한 철에게 그러한 ‘여권’이 있을 리 없다. 함성을 지르는 백의의 무리를 보며 철은 성급한 발언을 후회한다. 밀려오는 ‘징그러운 송장들’을 피해 숨은 철은 간판인 줄 알고 걷어찬 ‘험상궁은 사나이’에게 따귀를 맞고 나서야 환상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러한 「기상도」의 도입부는 남정현 소설에서 인물의 현실 극복 의지가 현실에 부딪혀 좌절되어 ‘구세주 망상’으로 이어지며, 그러한 망상은 망상일 뿐이어서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만다는 반복적인 서사를 축약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집요한 풍자 형식을 보여주는 남정현 소설에서 일차적으로 풍자되는 것은 미국 신식민지 지배, 친일 잔재, 외세, 독재 정권, 권력의 부패, 주체성을 상실한 무분별한 현대화, 그리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숭배하는 위정자, 속물, 기득권자와 그들의 허위의식이다. 반대로 그들과 불화하는 남성 주인공들은 당대 사회로부터 억압당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인물이면서도, 그러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저항의 주체로 여겨진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정현의 소설에서는 작가의 사회비판 의식의 담지자인 남성 주인공마저 그 특성이 희화화되고 어리석게 묘사되는 등, 풍자 주체로서의 도덕적·지적 우위를 부여받지 못하며 풍자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 인물의 수행은 저항의 전망을 구성하지 못한 채 우스꽝스럽거나 파괴적인 결말로 끝나는

61) 「기상도」, 『남정현문학전집1』, 국학자료원, 2002, 149쪽.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항 주체로서의 남성 주인공의 신경증은 스스로를 민족의 구원자로 여기는 ‘구세주 망상’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구세주 망상이 자신의 모순적인 행위를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스스로 발설하게 된다. 이때 남성 주인공이 여성을 객체 삼아 과시하고자 하는 ‘남성성’은 조소를 불러일으키며 우스꽝스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정현 소설의 풍자는 다른 풍자소설들과 차별되며, 오히려 풍자 주체로서의 긍정적 인물을 설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위기의식이란 기존의 질서가 의미를 잃었다는 불안감과 절망감 속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상태를 부정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다급한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니 불안감과 절망감은 심화될 뿐이며, 그것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 이는 남정현 소설에서 인물의 정신병리로 드러난다. 그런 면에서 남정현 소설에서 가장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부주전상서」와 「분지」에서 저항 주체인 남성 주인공의 실천이 구세주 망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남정현 소설 속에 나타난 남성 주인공의 정신병리는 식민지 남성성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 Ⅲ.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젠더 비수행 양상

#### 1. 무기력한 남성과 자기부정

전후 남정현 소설의 남성인물이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젠더를 과잉수행함으로써 나타낸다면, 전후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은 반대로 젠더를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극적으로 무기력한 남성 인물의 모습은 전쟁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태와 주체성 상실에 따른 삶의 불구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남성 인물의 젠더 비수행의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손창섭의 1950년대 초기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은 여성 인물과 어떤 식으로든, 설사 관계 맺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 인물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 속에서 그들의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손창섭 소설에서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초래한 남성의 이중적인 시선을 배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sup>62)</sup>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맥락에서 손창섭 소설의 여성 인물을 크게 남성의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로서의 여성’, 혹은 남성인물의 거세공포를 유발하는 ‘가해자로서의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자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일방적인 행동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혹은 남성 인물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생활적」의 순

62) 전성옥은 손창섭 소설의 여성 인물을 ‘남성 중심적 세계에서 희생된 피해자로서의 여성’으로, 나머지 하나는 ‘악녀 혹은 요녀 이미지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형상의 여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전성옥, 「전후의 현실과 섹슈얼리티:손창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7, 2010.)

또한 공종구는 남성 인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한 ‘피메일 콤플렉스’를 지적하며 여성 인물을 ‘타자화 기제를 통한 혐오와 폭력’, 그리고 ‘환상 가로지르기를 통한 승화’로 나눈다. (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 『한국현대소설학회』 40, 2009.)

김명임은 손창섭 소설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그에 따른 여성 인물의 매춘부적 성향을 지적한다.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학회』 45, 2017.)

김홍진 역시 손창섭 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위험한 여성’으로서의 악마적 성격, 혹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부각된다는 점을 밝히며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인물의 ‘말 걸기’를 분석한다. (김홍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 하위주체의 위상」, 『국어문학회』 56, 2014.)

이를 통하여 손창섭 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초래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을 해석을 바탕으로 삼아 그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혹은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혈서」의 창애, 「사연기」의 정숙, 「비오는 날」의 동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치 사물과 비슷한 상태인 여성 인물들은 남성에게 이용당하거나 그에게 병리적인 위안을 준다. 또 다른 유형인 ‘가해자로서의 여성’은 남성에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기보단 오히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경계의 대상이 된다. 남성에게 위협을 끼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인물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생활적」의 춘자, 「잉여 인간」의 봉우 처, 「공휴일」의 금순 등이 포함된다.

사실 이 구분은 서로 상반된 유형인 것 같지만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같은 타자화 기제이기도 하다. 남성에게 위안을 주거나 공포를 주는 ‘성녀-창녀’라는 유구한 이분법은 남성의 ‘거세공포’가 초래하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이중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타자화하는 이러한 이분법은 오히려 그 경계가 흐릿하기에 남성의 판타지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녀-창녀’ 이분법 속에서 ‘성녀’형 인물은 이미 ‘창녀’로서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성녀’로서 차별화된다. 「사연기」의 정숙한 아내 정숙은 남편 성규와 옛 정인인 동식 사이에 걸쳐져 두 남성의 애증 어린 친교 사이에서 번갈아 호출된다. 이와 비슷하게 ‘창녀’형 인물은 ‘성녀’와 같은 사정을 갖췄기에 ‘창녀’로서 더욱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미해결의 장」의 광순은 매춘업에 종사하는 ‘창녀’이지만 그것은 무너진 집안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함이며 그가 본래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적잖은 인기를 얻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구분이 서로 겹치는 인물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혈서」의 창애는 평소 무섭도록 무표정한 얼굴로 ‘돌멩이’처럼 꿈쩍 않고 앉아있기에 달수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창애를 무서워하는 달수는 창애와 결혼은 커녕 같은 이불을 덮기도 두려워한다. 하지만 외부의 자극에 무감한 창애는 준석에게 성적으로 이용당한다. 「혈서」의 창애를 악녀, 혹은 희생자로 단정지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손창섭 소설에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여성 인물의 양상에 대한 커다란 열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소 표면적인 듯하다. 그 속에는 연민의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경계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스펙트럼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손창섭 초기 단편소설의 남성 주인공들은 대체로 무기력하며, 결혼을 거부하고 이성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여성 인물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는 특히 생활에 적극적인 여성 인물들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남성 인물의 상이한 시선은 여성 인물의 ‘수행성’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손창섭 소설의 여성 인물을 그들의 ‘수행성’ 차원에서 비교하여 여성 인물의 ‘수행성’

을 바라보는 남성 인물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수행성의 스펙트럼 속에서는 단순한 ‘피해-가해’의 도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인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은 여성 인물의 ‘수행성’, 즉 여성 인물의 ‘사물성’과 ‘생활성’ 사이에서 상이한 시선을 내비친다. 그것은 남성 인물이 여성의 주체성을 얼마만큼의 ‘위협’으로 느끼는지에 연관될 것이다. 이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남성 인물의 경계심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습은 소설 「생활적」의 주인공 동주가 여성 인물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적」의 주인공 동주는 월남한 피난민으로, 뚜렷한 거처가 없었으나 우연히 만난 소학 동창인 천식의 방에 얹혀살게 된다. 천식이네는 서울로 올라가며 방을 양도 해주었고, 동주는 방 한 칸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만이 하루 일과이다. 이후 거리에서 우연히 중학 동창의 여동생인 춘자를 만나 함께 동거하며 살게 된다. 타지에서 고생을 하는 처지는 비슷하지만 춘자는 동주와 정반대의 인물이다. 춘자는 공장에 나가 돈을 벌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등, 생활 능력을 갖추고 현실 변화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춘자는 동주에게 옆집 남자 봉수가 우동 가게 개업을 제안한 건에 대하여 흥미를 보이며, 가게를 차린다면 매일 누워만 있는 동주에게도 “운동도 되고, 영양도 보충될 터이니 차차이 회복”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동주에게는 가만히 누워 있는 생활을 ‘회복’하여 생활에 나설 의지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즐겁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닦아보겠다”는 춘자의 희망적인 말에 ‘위압감’을 느낀다. 이처럼 생활의 변화를 꿈꾸는 춘자를 경계하는 것과 달리, 동주는 옆방에 사는 순이에게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 순이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몸져 누워 신음소리를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인물이다. 순이의 신음소리는 옆방에 누운 동주의 귀에도 매번 들려오는 것이다.

처음 동주는 순이의 신음소리를 ‘물귀신이 우는 소리’로 듣고 잠자리가 어수선해지기도 했으나, 순이가 “그냥은 심심해서 못 견디겠”어서 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고 순이의 신음소리를 아껴주기로 한다. 순이의 신음소리는 “머지않아 죽을지도 모르는 순이의 최선을 다한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순이는 병상 생활의 무료함을 신음소리로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순이의 무력함을 연민하는 이러한 태도는 순이의 보호자인 봉수의 태도와 상반된다. 봉수는 순이가 하루 빨리 죽길 바라며 아쉬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순이의 존재를 짐스러이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봉수가 마음에도 없는 순이에 대한 걱정을 내뱉을 때마다 동주는 “언어가 지니는 무거운 우울”을 느낀다.



이처럼 「생활적」의 동주는 순이의 ‘질병’과 ‘신체적 무력함’, 즉 순이의 ‘사물성’에서 위안을 얻으며 순이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고, 이와 반대로 더 ‘생활적’인 춘자에게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인물의 특징을 ‘수행성’ 측면에서 비교해보았을 때, ‘사물성’에 가까울수록 친밀하게 느끼고, ‘생활성’을 드러낼수록 기피하는 남성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성 인물이 여성의 주체성을 경계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남성 인물의 여성에 대한 ‘의존-멸시’의 구도와 연결된다. 남성 인물은 여성의 ‘생활력’에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들의 욕망과 주체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는 주체성 상실에 대한 열등감을 보다 생활에 적극적인 여성에게 돌려 그를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식민지 남성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sup>63)</sup>

이러한 ‘의존-멸시’의 구도 속에서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이 특이할 만큼 극단적인 자기부정의 정서를 내비친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생활적」의 동주는 방 한칸에 “목석같이 누워”있으면서 자신을 ‘송장’, ‘걸레조각’에 비유한다. 동주는 춘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비슷한 심정을 느꼈다. 타지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는 춘자를 보며 동주는 “남 붙들어주기는 고사하고 자기의 고깃덩이마저 주체하지 못해 일그러져” 있는 상태라고 스스로를 진단한다. 보다 나은 내일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스스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손창섭 소설에서 남성 인물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 뒷편에서 남성 인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기부정적 태도는 첫째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주변화된 자신에 대한 결핍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적」에 등장하는 옆방 남자 봉수는 “남자란 여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 “남자가 성욕을 잃게 되면 그건 폐물”이라는 말을 동주에게 잔소리하듯, 그리고 자랑하듯 늘어놓는다. 동주는 봉수의 이러한 말들 역시 ‘우울한 소리’로 인식한다. 동시에 무기력한 동주는 춘자의 정력적인 모습, 즉 춘자의 섹슈얼리티를 버거워한다. 이를 통하여 동주가 옆방 남자 봉수로 대표되는 ‘정력적인 남자’, ‘성욕이 활달한 남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스스로 소진된 감각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소설 「피해자」에서도 나타난다. 「피해자」의 주인공 병준은 본래

63) 「생활적」의 동주와 춘자의 사례 이외에도 「미해결의 장」에서 ‘문선생’이 동생 광순의 성매매에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그 사실을 거부하며 멸시하는 것, 「잉여인간」 속 경제력을 갖춘 ‘봉우의 처’가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혼할 자신도 여유도 없는 인물이었으나, 훗날 장인이 될 ‘방장’에 의하여 떠밀리듯 결혼하게 된다. 병준은 결혼한 이후 주어진 사위로서의 노릇, 남편으로서의 노릇, 아버지로서의 노릇을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결혼 전부터 다녔던 직장에 가서 월급을 타오는 일인데, 그마저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장인어른과 아내에게 구박을 받는다. 그 속에서 병준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기의 커다란 과오”인 것마냥 느낀다.

제목부터 「피해자」인 이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손창섭 소설에서 꾸준히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절망 의식에는 남성 인물의 ‘주체성의 좌절’이 드러나며, 그것은 가부장에게 요구되는 생계 부양자와 보호자로서의 모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서려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병준이 도무지 자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는 “인간 행세”라는 것이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에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동주와 병준이 ‘태어난 이유’, ‘사는 이유’의 부재에 골몰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성애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핍된 감각과 연결되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은 식민지 시기 상실되었던 ‘민족 주체성’을 확립할 민족-국가의 주축이 될 청년을 호명하였다. 그러한 청년의 표본, 즉 정부가 민족재건을 위해 요청한 ‘국민’의 자격과 그것의 ‘정상성’은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성-청년’의 몸, 그리고 해체된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이성애자로서의 남성성이었다. 국가를 재건할 주체가 신체 건강한 남성, 이성애자로서의 섹슈얼리티를 가진 남성이었다는 것은 역으로 신체가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이들,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들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는 민족주의와 섹슈얼리티 간의 관계를 시사한다. 역사학자 조지 모스는 근대 민족주의와 고결함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히면서, 고결함을 위한 사회적 태도와 도덕관념의 근저에 놓인 섹슈얼리티를 함께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가장 강력한 근대적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는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데 기여”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정념 없는’ 아름다움의 전형”을 만들어냈다. 가령 남성다움(manliness)의 관념은 18세기 근대 민족주의와 동시에 출현하는데, 이 남성다움의 관념은 ‘고결한 남성’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위를 ‘반-남성’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나누는 경계선이 된다. 남성다움이 정상성의 표준이 될 때, 정상성에 못 미치는 모든 것들, 즉 여성과 ‘여자 같은 남자’는 ‘남성다움’의 미달인 것으로, 고결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sup>64)</sup> ‘이성애’의 수행으로 구성되는 근대의 ‘남성

다음'이 '고결함'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근대적 남성 섹슈얼리티를 수행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고결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손창섭의 인물들은 '주체'로서의 남성적 섹슈얼리티의 결핍된 감각이 남성 인물의 자기부정적 태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이는 여성 인물에 대한 '의존-멸시' 구도의 역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은 경제적·사회적·성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남성들이다. 그들의 '주체성 회복'의 실패는 전쟁 이후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가 와해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에 나선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자신의 열등감을 보다 적극적인 여성에게 투사하여 그를 경멸하는 남성의 시선은 '식민지 남성성'의 사례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멸시' 구도 속에서, 주체는 경멸하는 대상에게 기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극적인 처지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승자박은 손창섭 소설에서 남성 인물의 극단적인 자기부정과 함께 자기자신에게서 이탈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이탈 소망은 소설 「생활적」에서 여성 신체의 '사물성'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난다.

익센 사투리를 쓰는 아주머니들은 우물에 똥을 퍼다 넣은 사람이 틀림없이 동주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동주가 아니라고 변명을 한 대야 끝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 아니냐. 아무 대답 없이 동주는 벽을 향해 도로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

“에라 이 자식 똥이라 쳐먹고 뉘져라.” 마지막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그러면서 발길로 문을 힘껏 지르고 가는 것이었다. 동주는 그저 무거웠다. 온 몸똥이가, 그리고 이 구린내 나는 공기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견뎌 내는 수밖에 달리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순이의 신음소리에 간신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동주는 그대로 하루가 또 저물어야 하는 것이다.<sup>64)</sup>

공동체의 문제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는데도 조금의 항변도 하지 않는 동주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지 멀쩡한 동주가 생각하는 '최선의 생활' 또한 마치 환자인 순이의 경우처럼 몸져누워 자신의 '생존상태'를 어떻게든 견디고자 하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동주는 자신의 생활을, 삶을,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주체성을 실현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를 견뎌보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변을 하

64) 조지 L. 모스, 공임순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22-23쪽, 참조.

65) 「생활적」, 『비오는날』, 문학과 지성사, 2005, 99쪽.

지 않는 동주가 범인이라고 판단한 채 욕을 하고 떠난다. 그러나 동주는 그저 돌아누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과 들려오는 순이의 신음소리에서 간신히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식할 뿐이다.

이처럼 동주는 오직 자신의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감각 하나에서 간신히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자기부정적 태도는 인물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도, 향락할 수도 없는 ‘무거운’ 짐덩어리마냥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sup>66)</sup> 동주는 ‘무거운 몸’으로부터 그것의 물질성을 예민하게 느끼며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신체의 타자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순이의 ‘사물성’을 친밀하게 여기던 동주는 소설의 말미 죽은 순이의 신체를 마주하게 된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소녀의 손을 동주는 쥐어 보았다. 그리고 잠시 고요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그는 왈각 시체를 끌어안았다. 자기의 입술을 순이의 얼굴로 가져갔다. 인제는 순이가 아니다. 주검이었다. 동주는 주검에 키스를 보내는 것이었다. 주검 위에 무엇이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섹지도 않은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자기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 있다고 동주는 의식했다. 살아있으니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은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래’라고 생각하며, 동주는 주검의 얼굴 위에 또 한 번 입술을 가져가는 것이었다.<sup>67)</sup>

동주가 순이에게 입을 맞추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순이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순이의 죽음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래’”라고 생각한다. 순이의 신체적 무력함과 병, 죽음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동경하고 있는 듯 보인다. 순이의 ‘사물성’에 위안을 느끼는 태도가 곧이어 자신이 그러한 ‘사물’과 같은 상태가 되길 원하는 욕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물화’된 여성 신체에 대한 남성 인물의 동일시는 「생활적」에서 시체와의 키스라는 그로테스크한 광경으로 나타난다.

66) 손창섭 소설 특유의 ‘신체의 타자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은 손창섭 소설의 ‘불구 모티프’와 연결된다. 손창섭 소설에는 병을 앓고있거나 신체가 훼손된 신체적 불구, 또는 타인에게 ‘병신’ 혹은 ‘머저리’ 취급을 받는 정신적 불구들이 대거 등장한다. 손창섭 소설의 불구적 인물들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신체를 낫설게 여기며 자기인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불구 모티프는 신체의 통제 불가능함을 삶의 역경과 수난으로 연결하여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주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불구’들과 그렇지 않은 인물군 사이에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분을 회의하게끔 만드는 전복적인 지점들을 산출하기도 한다.

67) 「생활적」, 앞의 책, 103쪽.

자기 자신에게서 이탈하고자 하는 이러한 소망은 춘자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이 굴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기력한 동주는 춘자의 ‘생활적’인 면모에 너무 위압감을 느끼는 나머지, 순이의 사물과 같은 상태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춘자에 대한 ‘의존-멸시’의 구도 속에서 동주가 순이의 ‘사물성’을 동경하게 되는 대목은 시사적이다. 자승자박의 상황에 빠진 남성 인물이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여성 신체의 ‘사물성’을 원하게 되는 모습은 「미해결의 장(1955)」의 지상에게서도 드러난다. 이는 소설에 나타나는 성매매의 문제와 연결된다.

「미해결의 장」의 주인공 지상은 오남매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사는 집에서 가장 천대받는 인물이다. 그 이유는 오직 지상만이 미국 유학이라는 이상을 단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온통 미국 유학이라는 허위의식에 들떠 있는 집안사람들은 그러한 입신양명에 영 뜻이 없는 지상의 존재를 모욕처럼 느낀다. 집안의 ‘대장’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제로 가부장으로서의 노릇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지상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집안에 누워 있거나 미국 유학이라는 환상을 깨트리는 행동을 보이면 “죽어라, 죽어!”라고 외치며 뺨을 때린다.

이러한 식구들 가운데서 나만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암만 해도 자신이 미국을 가야 할 하등의 이유도 나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주위와 자신의 중압감을 감당해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대가리가, 동체가, 팔다리가, 그리고 먼지와 함께 방 안에 빼곡 차 있는 무의미가, 나는 무거워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sup>68)</sup>

집안사람 중 유일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상황 속에서 지상은 대가리, 동체, 팔다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감각’을 느낀다. 지상 또한 신체의 타자성을 민감하게 느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집안의 멸시와 자신의 무의미를 견딜 수 없는 지상은 밖으로 나돌게 되는데,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문선생의 집으로 향한다. 그는 문선생의 집에서 광순이와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는 일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는다. 문선생의 집에는 여동생 광순과 어머니, 세 자녀가 살고 있다. 문선생은 가장이지만 “완전히 생활 능력을 상실한 폐인”이다. 문선생의 가족은 순전히 여동생 광순의 매춘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그러나 문선생은 광순을 대놓고 경멸하며 동생 때문에 “온 천하의 죄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괴로워한다. 지상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는 ‘진성회’의 회원으

68) 「미해결의 장」, 앞의 책, 153-154쪽.

로서, 동생이 ‘인육시장’에서 일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진성회’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끼리 모여 국가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일을 하다가 죽자는 취지”로 만들어낸 것으로, 거창한 목표와 달리 “세상이 자기들을 몰라주고 하늘이 때를 허락하지 않음”을 개탄하고 헤어지는 자위모임에 가깝다.

「미해결의 장」에서 광순과 지상의 관계는 수수께끼처럼 그려진다. 지상은 광순에게 매춘을 ‘요구’하지도 않고, 둘은 절친한 친구로도 연인으로도 묘사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상은 집에서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할 때 광순을 찾아가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거나, 혹은 광순이 없는 이불에서 혼자 숙면과 안정을 취한다. 광순 또한 지상이 하릴없이 자신의 방과 ‘오피스’로 찾아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공상에 빠져 길거리를 걷고 있는 지상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기도 한다.

게다가 광순은 지상을 만날 때마다 백 환짜리 석장을 항상 건네주는 것이다. 지상은 마치 보호자가 건네주는 용돈을 받듯이 그 돈을 받아 밥을 사 먹는데, 마치 이상의 「날개」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아내의 의존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모습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광순과 지상은 부부사이도, 연인도, 남매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상은 광순이 건네주는 돈을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 쓰면서도 광순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광순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무어냐고 묻자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짜장 광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건 확실히 내게는 과중한 질문인 것이다. 너는 왜 사느냐? 하는 물음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질문의 여독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골치가 아팠다. 69)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광순을 찾아가는 이유가 지상 자신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와 다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상은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과 달리 아무런 요구나 기대 없이 광순을 찾아갈 수 있다. 지상에게는 삶을 살 이유든 광순을 살 이유든 그런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순 역시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물군, 예를 들면 돈을 매개로 성욕과 지배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성매수자들과, 매춘으로 번 돈을 기대하는 가족들과 달리 아무런 목적 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지상을 유일하게

69) 「미해결의 장」, 앞의 책, 175쪽.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상대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광순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 광순에게 있어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는 지상에게 주는 삼백환은 심리적 연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는 지상에게 준 삼백환에 대하여 그냥 ‘다 끝난 연애의 위자료’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지상이 광순에게서 위안을 느끼는 이유는 광순이 항상 ‘웃는 얼굴’로 곁을 내주는 일에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어떤 행동에도 ‘군소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광순이 매춘을 하면서 익힌 몸의 반사적인 습관에 가까운 것이다. 즉, 지상이 광순에게 위안을 느끼는 이유는 광순이 ‘창녀’라는 조건에 기인한다. 게다가 지상은 ‘사는 이유’에 대해 심히 고통을 느끼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광순의 ‘오피스’에 드나드는 남자들처럼 방문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굳이 광순의 ‘오피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찾을 수 없는 삶의 의미와 스스로의 쓸모에 대해 고민하다가, 광순과의 관계에서라도 무언가 주체성을 발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해한다.

지상은 광순을 찾는 다른 남성들의 존재를 계속해서 의식하며 자신은 그들과 달리 광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결핍된 지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지상이 돈을 매개로 한 착취적인 성적 주체로서 다른 성매수 남성들처럼 광순의 몸을 사는 행위를 ‘같은 남성’인 자신도 수행해야 할 주체성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 성적 섹슈얼리티, 즉 과잉된 이성애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박이 초래한 불안인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지상은 광순에 대한 자신의 ‘비수행’에 대해 강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성매수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도리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상이 자신의 몸을 무겁게 느끼는 것, 즉 신체의 타자성을 민감하게 느끼는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대 이성애 섹슈얼리티의 권력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우에노 치즈코에 따르면, 근대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성혐오의 뒤편에는 ‘남성의 자기혐오’가 있다. 여성이 여성혐오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성적 객체’로서 호명된 자신과 사회에 대한 혐오감을 품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듯이, 남성 또한 ‘성적 주체’로서 신체를 지배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신체를 타자화한 댓가를 죽을 때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대의 ‘주체-객체’의 형이상학, ‘정신-신체’의 이항대립과 연결된다. 즉 이러한 구도 속에서 “여성은 신체에 종속되

고 남성은 신체를 지배”해야 마땅한 것이 되는데, 남성은 여성 신체를 타자화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신체의 주인으로서의 주체=자신을 과시할 필요를 요구” 받는다. 동시에 신체의 욕망은 정신의 욕망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 남성이 느끼는 ‘성욕’은 그 자체로 ‘더러운 욕망’이 된다. 게다가 그 성욕이 “더욱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남성 스스로의 섹슈얼리티와 신체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치즈코는 이러한 남성의 신체 혐오를 “남성임에서 오는 속환”으로 정의한다.<sup>70)</sup>

「미해결의 장」에 나타난 성매매 산업의 메커니즘도 이와 비슷하다. 성매매에 대한 흔한 선입견 중 하나는 매춘 여성은 ‘아무 남자든 상관없어’ 성적으로 방종한 존재라는 것인데, 실상은 그 반대다. 매수 남성 쪽에서 ‘아무 여자든 상관없어’는 전제가 없다면 남성의 성매매는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광순의 대학생 신분과 정서적 위안을 부가하는 ‘웃는 얼굴’은 하나의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매매의 메커니즘에서 남성이 구매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여성’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볼 수 있다. 매수 남성에게 “미니스커트나 알몸, 궁극적으로는 성기와 같은 신체 일부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는 성립·유지될 수 있다. 즉 성매매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성기’로 환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남성 또한 똑같은 ‘성기’로 환원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sup>71)</sup>

그런 면에서 문선생이 매춘을 ‘인육시장’이라 비난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거래되는 것은 여성의 ‘더러운’ 육체이지만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남성 또한 ‘뺨고 뺨은’ 육체로 전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춘은 인육이 상호 거래되는 시장인 것이다. 문선생은 ‘진성회’ 회원들이 동생의 매춘 사실을 알게되자 “방바닥에 엎드려 꺽꺽 느껴 울며, 속죄의 의미로서 자기는 동지들의 손에 죽어야 하겠으니, 이 비굴한 놈을 당장 죽여달라”고 호소하지만, 어쨌거나 그는 동생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눈을 감는 인물이다. 오히려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처지를 과장적으로 비판하는 듯 보인다. 문선생의 이러한 이중성은 사회에 만연한 매춘의 존재를 일종의 ‘필요악’으로, 즉 매수 남성의 전형화된 욕구 해소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매춘 여성을 “뱀이나 옴두꺼비”인 것마냥 취급하는 다른 남성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지상은 일인칭 서술자로서 광순에게 많은 ‘손님’들이 따라붙는 것,

70)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315쪽, 참고.

71)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262-263쪽, 참고.



문선생이 광순을 비난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고 듣는 관찰자로 남는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더불어 지상은 초등학교 운동장 담장의 구멍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며 ‘인간’을 ‘박테리아’에 비유하는 등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객관화하며 ‘무겁게’ 느끼는 인물이다. 지상은 자기 신체의 타자성을 민감하게 느끼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인물인 만큼, 성매매의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의 ‘성기’로 환원되는 반-실존적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그의 개인적 성질로 인한 비수행에서 산출된 의미일 뿐이지, 지상이 성매매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상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촌 선옥을 광순에게 데려가 자신이 선옥을 ‘취직’ 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선옥이었다면 정말 남의 첩이 되어서든, 양갈보질을 해서든 이종형의 마약값을 당하고, 그 집 살림을 도와주었을 걸 하고 후회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선옥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내가 여자였더라면 하는 생각에 취해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광순을 따라 그 ‘오피스’에 나가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옥은 다행히 여자가 아니냐.<sup>72)</sup>

오히려 자기가 ‘여자’였더라면 직접 매춘을 해서 집안의 경제에 기여하는 등 자신의 삶이 지금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사정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광순이 선별적으로 제공한 정서적 위안과 재화를 경험한 지상은 차라리 자기도 ‘창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생활적」의 동수가 순이의 병환과 죽음, 즉 순이의 ‘사물성’에서 위안을 느끼다가 곧이어 자신이 그러한 상태가 되길 바랐던 모습과 닮아있다. 극단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남성 인물이 도리어 여성 인물의 ‘객체성’, ‘사물성’을 동경하게 되는 뒤튼린 굴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여성 신체의 ‘사물성’에 동일시하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의 상황과 다른 ‘장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지상은 성을 물건으로 취급하여 매매하는 산업 속에서 ‘성적 객체’의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며, 동주 또한 순이의 병환과 죽음에 거리를 둔 인물이며 그저 지켜보는 입장일 뿐 그것 자체가 될 수 없다. 동주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며, 지상은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동경할 수 있는 것이다. 손창섭 소설의 자폐적인 남성 인물들의 수행은 오직 여성 인물의 ‘사물성’을 동경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그들이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

72) 「미해결의 장」, 앞의 책, 178쪽.

의 모든 실천적 변곡점들을 유예하며 살아가는 주체들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즉, 손창섭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기력한 남성의 젠더 비수행은 인물의 자기 부정적 감각에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들이 무언가를 ‘비수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기력한 자신의 몸이 무거워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인물이 느끼는 신체에 대한 타자성은 그들의 섹슈얼리티에 내재한 불안감과 연결된다. 그들의 자기부정은 ‘고결하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근대 남성 젠더의 바깥, ‘비남성’으로서의 자신의 일부를 타자화한 배상을 치르는 것이다.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무기력한 남성들의 젠더-비수행은 근대 남성 섹슈얼리티의 소외를 체현한다.

이러한 소외는 규범적 남성성으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진다. 이 절에서는 여성의 ‘사물화’된 신체를 향한 동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창섭 초기 단편소설의 경우 또 다른 양상으로 남성 인물의 이탈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근대 남성동성사회에 은폐된 동성애적 욕망을 가시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 2. 동성애적 친밀성과 규범적 남성성의 이탈

손창섭 소설 속 남성인물의 젠더 비수행은 생활에 적극적인 여성 인물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결혼으로 귀결되는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규범적 남성성을 상대화하기도 한다. 이는 남성 인물간의 동성애적 친밀성으로 나타난다. 손창섭 소설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관습적으로 기대되는 여성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유보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다른 남성 인물간의 관계가 부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공휴일公休日(1952)」의 주인공 도일은 예전에 자신과 혼담이 있었던 아미의 청첩장을 받게 된다. 도일은 청첩장 위에 부고장과 같은 형식을 그려넣고 ‘결혼’을 ‘죽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도일은 자신의 새로운 약혼자 금순에게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도일은 금순이 친밀하게 굴 때마다 무언가 침범당하는 느낌을 받고 금순의 섹슈얼리티를 위협적으로 여기는데, 이러한 공포와 경계심은 금순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는 화장을 하는 동생 도숙을 보면서도 “하마의 등덜미나 엉덩짝”을 보는 것 같은 기이한 기분을 느낀다.

도숙을 비롯한 가족들은 도일이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젊은 남녀 간의 애정이라면 대뜸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리만큼 되어 있는 요즈음”에 있어 도일이 그 문제에 냉담할 수 있는 것은 ‘생리적 결함’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는 가족들을 보며 도일은 자신의 권태가 이성 문제나 결혼 문제에 한한 것이 아니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원체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그저 ‘의무’만을 감당해 갈 뿐이지 아무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정말 나를 낳으셨수?”

이 어린애 같은 질문에, 어머니는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어라고도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인 까닭인지, 이이가 어째 내 어머니일까? 그렇게 도일은 느껴지는 것이었다. 혈연관계의 인연이 그에게는 어인 까닭인지 도무지 애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sup>73)</sup>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일은 동생,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혈연관계에서 조

73) 「공휴일」, 앞의 책, 20쪽.

차 친밀함과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던 도일은 전 약혼자인 아미의 결혼이 파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어린애를 업은 여자와 그 가족들이 찾아와 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어린애를 업은 젊은 여자는 다름 아닌 신랑의 아내였다. 난장판 속에서 신랑은 달아나고, 아미는 벽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더라고 도숙은 흥분하여 설명한다.

도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도숙이모양 허덕 흥분하지도 않았고, 어머니처럼 혀를 차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 눈이 여느 때 없이 빛나는 것 같았다.<sup>74)</sup>

주목해야 할 점은 도일이 그 일화를 들으며 “그 눈이 여느 때 없이 빛”났다는 대목이다. 이성 문제든 결혼 문제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도일은 아미의 신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숨길 수 없는 흥미를 드러낸다. 그것은 ‘같은 남성’으로서 자신과 달리 태연히 새장가를 들러던 유부남의 ‘뺨심’에 대한 비교, 그리고 모종의 흥분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매사에 관심을 보일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는 도일이 ‘같은 남성’으로서의 다른 남성 인물, 즉 남성 간 유대 속 자신의 위치를 예민하게 의식하며 흥미를 보인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또한 「공휴일」에는 도일이 남자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가 ‘뺨가족을 만져보게 내놔달라’고 부탁하자 스스럼없이 따르는 장면이 있다.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하마의 등덜미나 엉덩짝”, “번지르르한 비계투성이”로 인식하며 거부하고, 동생 도숙과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한 혈연관계의 인연에서조차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며 그들이 표하는 애정에 의아함을 느끼는 결벽적인 모습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일이 오직 다른 남성 인물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감각하면서, 또한 남성 인물에게만 스스럼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친밀성을 보이는 부분은 주목할만한 점인 듯하다.

손창섭 초기 단편소설에서 남성 인물이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거부하는 도중 다른 남성 인물과의 친밀성이 드러나는 것은 「생활적」만의 특징은 아니다. 작품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겠지만, 손창섭 소설에서는 이성애로 이루어지는 ‘근대 가족 만들기’의 내면화, 즉 재생산적 이성애라는 의무적인 틀 속에서 남성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권유되는 여성 인물과의 성애적 관계를 유보한 채 다른 남성 인물과의 친교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인물과의 ‘관계 유보’와 남성 인물과의 ‘관계 연장’을 보여주는 소설로 「비오는 날」과 「사연기」가 있다.

74) 「공휴일」, 앞의 책, 23쪽.

소설 「비오는 날」의 주인공 원구는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동욱 남매를 떠올린다. 그런 원구와 동욱 남매의 관계는 복잡하다. 셋의 관계에서 단순히 원구가 친구의 여동생인 동욱과 결혼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만을 고민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원구는 동욱의 허름한 집에 자주 찾아간다. 그곳엔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함께 살고 있다. 다리가 불편한 동욱을 볼 때마다 원구는 신경이 쓰인다. 동욱의 심경과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오빠인 동욱에게도 마찬가지다. 원구는 동욱의 허름한 모습을 보며 이상한 ‘정’을 느낀다.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회색 즈봉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곤 해서 여기저기 구김살이 쳐 있었다. (...) 그러한 동욱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이 갔다. 리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구는 동욱의 손을 끌었다.<sup>75)</sup>

원구는 동욱의 차림새와 형편에 ‘정’을 느끼며 “동욱의 손을 끌”고 나서서 자리를 만든다. 만남의 과정 속 동욱은 원구가 여동생과 결혼하길 원한다는 바람을 조금씩 내비친다. 이러한 부탁은 동욱이 술에 취했을 때, 혹은 잠에 취했을 때 그것의 힘을 빌려서 발화된다. 결혼에 대한 대화는 둘이 술잔을 주고받을 때, 또한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 때 몇 번이고 반복된다. 원구는 동욱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긴장하지만 그것에 대한 뚜렷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동욱과의 결혼 문제를 어물쩍 넘기고 있는 것이다.

동욱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내가 자네람 주저없이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암 장담하구 말구, 혼잣말처럼 그렇게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종잡을 수 없는 동욱의 그런 말에 원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암 그럴 테지, 하며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이었다. (...)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는 동욱의 초라한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서 원구는 또다시 동욱의 과거의 그 집안을 그려 보며, 목사가 되겠노라고 하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동욱을 아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sup>76)</sup>

그 과정에서 원구와 동욱은 서로 ‘정’에 기반한 악수와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기도 한다. 원구는 동욱의 막막한 처지를 안쓰러이 여기며 “동욱의 손

75) 「비오는 날」, 앞의 책, 65쪽.

76) 「비오는 날」, 앞의 책, 53-54쪽.

을 쥐어 흔드”면서 “동옥을 아껴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 즉 원구는 남매의 불운한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동옥과의 결혼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동옥과의 애정어린 친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원구가 동옥과 결혼해달라는 부탁을 회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결혼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매와의 관계를 줄곧 유지하며 남자 친구인 동옥과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마치 불운한 남매에게 쏟는 관심에 대한 보상처럼 지속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와 같은 원구의 모습에서 소설에 표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동성애적 친밀성’이라는 이면적 의미, 즉 소설의 하위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소설의 말미 원구는 남매에게 주기 위하여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집에 찾아간다. 하지만 이미 그들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원구는 동옥과의 결혼, 또한 동옥과의 친교 유지에 모두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는 새로운 집주인 사나이에게 보자기 꾸러미를 떠넘긴 채 허망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이성애-동성애’의 구분 속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성애의 관습 속에서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동성애적 친밀성이 서사의 하위텍스트로 작동하는 또 다른 소설로 「사연기死緣記(1953)」가 있다. 「사연기」는 동식과 정숙-성규 부부의 기묘한 혼거를 그린다. 월남민인 그들은 북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이들의 삼각관계는 죄의식과 애증, 질투로 점철되어 있다.

성규는 동식의 앉는 자리에서까지도 몹시 신경을 썼다. 자기 곁으로 다가왔지 않고 윗목으로 떨어져 자리를 잡기라도 할 말이면, 성규는 그 야윈 얼굴을 찡그리며, 병독 있는 자기의 호흡을 꺼리기 때문이 아니냐고, 그럴 거라고, 나는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네야 이제부터 생을 향락해보려는 야심가니까. 응당 나 같은 병독체가 무섭고 싫기만 할 것이라고, 고개를 노숙스레 주억거리는 것이었다. (...) 그럴 때면 퍼런 불길이 이는 눈으로 들어오는 동식을 노려보고 있던 성규는 아무리 송장 같은 내 말이라도 자네 양심에 꽤 아프게 찔렸나 보지, 하지만 마지못해 내 옆에 와 앉아 준댔자 고마울 것도 없으니, 속으로만 깨름칙해 하지 말고 아예 저만큼 물러나 앉게, 그게 더 솔직해 좋지 않느냐고 비꼬아보기도 하는 것이었다.<sup>77)</sup>

폐결핵에 걸린 성규는 동식이 그런 자신과 떨어져 앉는 위치를 문제 삼는다. 성규는 건강한 동식에게 “생을 향락해보려는 야심가”라고 빈정거린다. 하지만 성규가 동식에게 ‘야심가’라는 호칭을 붙이는 이유는 진정으로 동식이 ‘야심가’라고 생각해서가

77) 「사연기」, 앞의 책, 28쪽.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철저히 비판하여 병자를 대면하고 있는 동식의 죄책감을 견드리기 위함이다. 동식 또한 성규의 심리를 짐작하기 때문에 그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는 동식 스스로 자신이 ‘야심가’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식은 원래부터 ‘생을 향락’하지 않던 것은 아닌데, 동식에게는 정숙과의 관계에서 생생한 매력을 느꼈던 시절이 있는 것이다.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어린 시절 정숙의 꺾바퀴 밑 까만 기미를 자기만이 아는 정숙의 ‘귀중한 비밀’이라 여겨 향락했던 기억이 있다. 과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동식과 정숙은 별일이 없었다면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8·15 광복 이후 동식은 고장에서 손꼽히는 지주였던 부친과 함께 끌려가 수감되고 만다. 이때 좌익 청년 사이에 영향력이 있던 성규는 동식이 돌아올 수 있게끔 힘을 썼는데, 이 과정에서 성규가 정숙에게 “자신과 결혼을 하면 무사히 동식을 나오게 힘써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 시베리아로 유형 당하게 될 것”<sup>78)</sup>이라고 협박을 했던 것이다. 동식이 석방되어 몸을 추스르는 사이, 정숙은 성규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동식이 결혼에 대한 내막을 알게 된 후에도 정숙과의 관계에 미련을 갖거나 성규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부부 곁을 떠나지도 못한 채 기묘한 삼각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소설 「사연기」를 이끌어가는 수수께끼같은 점이다. 동식은 이 상황이 정숙에 대한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그러나 그 뒷면에 패잔병이 되어버린 성규에 대한 연민 또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규는 무엇을 생각하고인지 제 간에는 두 팔을 번쩍 들어 휘둘러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한 번 허공에서 굵글거리 보고 이내 떨어지듯 도로 내려오고 만 것이었다. 고만 운동에도 착 달라붙은 성규의 가슴이 금시 파열이라도 될 성싶게 가쁘게 들먹이는 것을 바라보는 동식은, 농구 선수로서 그 동작이 번개같이 민첩했던 중학 시절의 성규를 생각하고 순간 슬퍼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32)

동식은 자신과 정숙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성규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해골같이 말라가는 성규를 바라보며 건강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떠올리고 슬픔을 느낀다. 동식은 성규의 개입으로 망가진 정숙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성규가 죽어가는 몰골을 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한 부채감에 사로잡혀있는 듯 보인다. 폐결핵에 걸려 죽어가는 성규를 지켜보는 동식

78) 「사연기」, 앞의 책, 43쪽.

은 이제 더 이상 ‘삶의 향락’도 느끼지 못하며, 옛 연인이었던 정숙의 ‘기미’에 대한 열정이나 후회도 느끼지 않는다.

즉, 동식은 일차적으로 성규의 ‘병’ 때문에 그에게 동정을 느낀다. 가망 없이 병이 악화되는 성규를 바라보는 것, 성규가 정숙과 자신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은 괴롭고 끔찍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동식은 성규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동식이 성규의 병이 마음에 걸려 그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성규가 얻는 “<질병에 의한 이득>”<sup>79)</sup>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심리적 연원에 의한 신체적 전환을 통하여 ‘병’으로 얻는 이득을 취한다. 성규는 이미 협박으로 정숙과 결혼하여 그를 ‘소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규가 히스테리로 얻고 있는 이득이란 바로 동식과의 관계 유지인 것이다.

본래 정숙과 동식이 연인사이였던 것을 고려하면, 성규가 동식에게서 정숙을 빼앗아 그와 결혼한 순간부터 동식과 성규의 친밀한 관계는 끝났어야 자연스럽다. 성규가 욕망하는 대상이 정숙이었다면 말이다. 성규가 정숙을 소유하지 못하여 ‘불안’했다면, 그의 불안은 정숙을 동식에게서 빼앗음으로써 해결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규는 동식과의 관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동식과 정숙 사이를 질투한다. 성규의 ‘히스테리’는 그 병환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동식과의 관계유지’라는 숨겨진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본래 질투와 시기, 야심이 강했던 성규가 동식의 연인이었던 정숙을 강제로 소유함으로써 동식과의 관계를 뒤틀린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동식에 대한 성규의 집착은 “정숙의 부축을 받아 뺨쓰를 벗고 요강을 타고 앉으며, 인광처럼 타오르는 그 눈으로 동식을 쏘아보”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물론 동식 또한 “주저하지 않고 마주보아 주었다.”<sup>80)</sup>

성규는 자신의 병으로 하여금 동식의 양심을 자극함으로써 그의 신경을 잡아매는 것에 성공한다. 어쩌면 정숙이 히스테리적인 남편을 인내하는 태도 또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동식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동정과 의무감을 사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식은 정숙과의 재결합을 회피하고 남들이 그들을 부부사이로 볼까 봐 겁내기까지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동식 또한 옛 연인이었던 정숙과의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규와의 친교라고 볼 수 있다. 정숙과

79) 지그문트 프로이트, 홍혜경·임흥빈 역, 「일상적인 신경질환」, 『정신분석강의(하)』, 열린책들, 1997, 542쪽.

80) 「사연기」, 앞의 책, 35쪽.



의 재결합에 대한 의지를 비친다면 성규와의 관계는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남성 인물은 그들 사이에 낀 정숙과의 진지한 관계 형성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죄책감에 억눌린 동식에게 정숙과 맺었던 ‘생의 향락’의 기억이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성규는 협박으로 결혼한 정숙을 소유물로 취급할 뿐이다.

이처럼 소설 「사연기」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동식-정숙의 결혼이 문제되는 듯 보이지만, 동식과 성규 모두 정숙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규는 동식이 욕망하는 대상이었던 정숙과 결혼함으로써 동식을 소유하는데, 이는 동식에 대한 욕망이 성규로 하여금 동식의 욕망을 모방하게끔 한 것이다. 동식은 정숙과의 결혼 문제를 회피하고 성규를 연민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기묘한 삼각관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은 동식과 성규의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은 이성애의 관습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동성애적 친밀성’이라는 하위텍스트로 읽을 때 이해 가능한 것이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 둘, 여성 하나의 삼각관계 속에서 오히려 남성 인물 간의 욕망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호모 소설’ 속에서 ‘호모 섹슈얼’적인 욕망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세즈윅의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호모 소설’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성 동성 사회’를 일컫는다. 게일 루빈은 남성들 간 여성의 교환에서 문명의 기원을 읽은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하여, 남성지배사회에서의 ‘여성교환’의 삼각구도를 밝혔다. 남성-가부장제의 무한동력이자 그 기반인 ‘호모 소설’은 남성들 사이의 여성 교환인 이성애 관계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러한 ‘남성 동성 사회’에 대한 세즈윅의 독특한 시각은 ‘동성친화적 남성지배구조’가 “남성 동성애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에 대한 공포와 억압이 이성애적 남성 지배의 이면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한다는 발견에 있다. 그것은 ‘남성 동성 사회 욕망(male homosocial desir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와 ‘욕망’이라는 언뜻 내/외부가 구별된 듯한 두 단어 사이의 결합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세즈윅은 그러한 ‘남성 동성 사회’와 ‘남성 동성애 욕망’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세즈윅이 보기에 이러한 동성사회적 연속체 속 동성사회적 욕망에는 동성애적 욕망이 혼재되어있으며, 그 둘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강력한 ‘호모 포비아’의 작동으로 남성 동성애적 욕망들을 축출하는 ‘호모 소설’ 속에서는 남성들 간의 욕망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혐오증, 즉 ‘호모 포비아’가 남성 동성 사회를 유지하는 동력이라는 세즈윅의 주장은 “지배-억압의 구도에 남성-여성의 대립뿐 아

니라 이성애-동성애의 축”<sup>81)</sup>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모 소셜’은 남성 간의 성적 주체로서의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성립된다. ‘호모 소셜’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객체로 존재하며, 고로 남성이 성적 객체가 된다는 사실은 ‘비-남성’으로서 ‘여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 간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남성동성사회의 경계선을 위협하는 것이다. 동성애 혐오적인 사회에서 ‘남성 답지 못한’ 남성이 ‘계집애’, ‘호모’라는 욕을 들으며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성동성사회 속에 남성 동성애적인 욕망이 가시화될 때마다 ‘남자 같지도 않는 남자’, ‘고추 떨어진 남자’, ‘계집애 같은 남자’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척출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남성 동성사회는 그 속에 혼재되어 있는 남성 동성애적인 욕망을 척출하는 것을 동력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배제하는 이유는 남성 동성애적 욕망을 ‘비-남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손창섭 소설에서는 남성 둘, 여성 하나의 삼각구도 속에서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 사이의 욕망과 관계성이 부각되면서, 호모 소셜과 호모 섹슈얼의 복잡하고 밀접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호모 소셜’ 속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호모 섹슈얼’적인 욕망들이 손창섭 소설에서 남성 인물 간의 욕망을 서사의 이면에 자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 「인간동물원초人間動物園抄(1955)」는 이러한 남성 간의 접촉이 극대화된 소설로, 남성 교도소에서의 성애적인 권력관계를 그린다. 교도소의 동굴 같은 방 안에서 수감자들은 창살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구경하는데, 간혹 그곳에 여자와 남자가 같이 나타나면 소동이 발생한다. 수감원들은 그들을 보고 “연애를 걸러 왔다”면서 웅성거린다. “연애를 걸러면 저렇게 여자를 외딴 데로 끌고 가는 것이 제일”이다, “저녀는 영락없이 오늘 안으루 정조를 뺏기구” 만다, “저게 여태 처녀 줄 아느냐”라고 수군거린다. 또한 창밖의 남성을 보며 “저 자식이 연애했 처음 해보는 모양”<sup>82)</sup>이라고 비웃으며 훈수를 두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남성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더욱 상투적으로 드러나는 ‘호모 소셜’의 위악적인 풍경을 그린다. 여성을 성적 객체화하여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남성 동료들과 공유하며 유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의

81) 윤조원,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17, 2009, 138-139쪽, 참고.

82) 「인간 동물원 초」, 앞의 책, 199쪽.

성적 능력을 견주는 대화는 더욱 폭력적일수록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듯 보인다. 또한 과잉적인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적’인 모습은 수감자들에게 더 ‘남자 다운 남자’로 인정받음으로써 교도소 안의 서열을 쟁취하려는 은밀한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질이나 매독균이 욕실거려도 좋으니 저년을 하룻밤만 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웃는 사내에게 ‘핑핑이’라는 별명이 지어진 이유는 ‘방장’에게 매일 밤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빈혈을 겪기 때문이다. 낮 동안 서로의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유희하던 핑핑이는 밤에 수감소의 최고 서열인 방장 혹은 주사장의 성적 욕구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후 수감된 양담배, 소매치기도 같은 처지가 된다. 낮에 성립되는 수감소의 안정된 역할 분담은 밤 동안에 이루어지는 성적 권력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매번 흐트러진다. 가장 높은 서열인 방장과 주사장은 어떤 사내를 자신의 성욕받이로 삼을 것인지 계속 다투는데, 둘의 대립 속에서 방장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은 다음과 같다.

“네간 놈이 평생 징역살이나 했지, 단 한 번인들 여자와 자본 경험이 있느냐? 숫제 사내 밑구멍에 고름이나 곰겨주는 게 고작일 게다.”

방장은 정말 사실이 가까운 나이에 한 번도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 그 말을 들을 적마다, 그는 인간으로 최대의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이만 생각되는 것이었다.<sup>83)</sup>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장은 ‘여자와 단 한번도 자본 적 없다’는 사실을 지적받는 것을 ‘최대의 모욕’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한다. 주사장 또한 그 말이 타격적일 것임을 미리 알았다는 것은, 남성동성사회 속 이성애 섹슈얼리티의 결여가 남성에게 있어 ‘비-남성’적이라는 ‘최대의 모욕’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는 인물이 그들 사이의 서열을 이용하여 다른 남성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들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방장과 주사장은 서로의 섹슈얼리티를 비난하다가 결국 한쪽을 살해하는 파괴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인간동물원초」에서는 서로의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과시적으로 견주는 낮이 지나가고 동성애적 욕망이 부닥치는 밤이 찾아오는데, 결국 낮과 밤이 겹치는 어느 새벽녘, 방장이 주사장을 살해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이를 통하여 마치 ‘호모 소설’의 위악적인 풍경을 축소한 듯한 ‘인간 동물원’의 폐쇄적인 방 속에서, ‘호모 소

83) 「인간 동물원 초」, 앞의 책, 210쪽.

설'의 배제 논리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회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교도소에 나타난 강압적인 성관계와 파괴적 결말은 남성 자신이 '성적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동성애적 욕망'의 존재에 대한 공포의 반영인 것이다.<sup>84)</sup> 손창섭 초기 단편소설의 경향으로 보아 다소 돌출적인 면이 있는 소설 「인간동물원초」는 앞선 소설에 드러났던 '동성애적 친밀성'이라는 하위텍스트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손창섭 소설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남성 인물의 젠더-비수행은 이성애 섹슈얼리티의 거부로 이어진다. 동시에 여성 인물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와 구별되는 동성애적 친밀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근대의 남성중심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 '동성 사회적 욕망'을 가시화한다. 이는 남성동성사회에서 남성 동성애적 욕망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이다. 손창섭 소설에서 반복되는 '결혼 거부 모티프'에 선행하는 '결혼 의무 모티프'는, 인물에게 이성애 섹슈얼리티라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남성 인물간의 복잡한 욕망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손창섭 소설에서는 식민지 남성성의 폐쇄적인 메커니즘이 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남성 인물이 '규범적 남성성'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그들의 젠더-비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은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회피하고, 남성 동성애적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비-남성'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동성애'를 배제한 '규범적 남성성'에서 이탈하고 그것을 상대화한다. 남성 인물의 젠더 비수행이 산출하는 정치적인 가능성은 손창섭 소설에 재현된 여성에 대한 이중성과 멸시, 즉 식민지 남성성이 텍스트 속에서 굴절된 결과물이다. 손창섭 소설의 남성 인물들은 여성의 주체성을 경계하며 그에 대한 양가감정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거부함으로써 비수행적인 의미를 산출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

84) 본고에서는 수감자들이 '호모 소설' 속의 배제 논리를 의식하며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다는 점, 앞선 손창섭의 단편소설에 동성애적 친밀성이 하위텍스트로 내재해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간동물원초」를 '호모 소설' 속에서 억압된 '호모 섹슈얼'적 욕망이 폭발적으로 가시화된 소설이자, 그것에 대한 남성의 공포가 반영된 소설로 해석하였다. 이와 다른 관점으로 「인간 동물원초」에 나타난 동성애적 접촉을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허윤은 「인간 동물원 초」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된 한계적 공간으로서의 감옥 속에서 '거세'된 남성 주체성의 재확인인 동성애적 욕망으로 표현되었다고 분석한다. 남성 교도소에는 '공격하는 능동/공격받는 수동의 이분법'을 기입할 '여성'의 존재가 부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반사적 사도매저키즘은 자기 내부에 타자-여성을 만들고 처벌"함으로써 "남성성을 확인하기 위해 남성을 공격"한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결말은 "남성성에의 확인이 살인이라는 궁극적 공격"으로 이어진 것이다. (허윤, 앞의 논문, 61-62쪽.) 이처럼 소설에 나타난 동성애를 감옥이라는 한계적인 상황, 즉 '성적 객체'로 삼을 여성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더 '여자 같은 남자'를 '여성'으로 대치하여 발생한 욕망으로 분석한 또 다른 관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 V. 결론

한국에서 ‘전후戰後소설’은 1950년 6월 25일 이후로 전쟁 경험과 그 이후의 삶을 다루는 소설들을 총칭한다. 특히 한국 전쟁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발발하였으며, 뒤이어 한국이 미국에 의한 신식민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 한국의 경우 전근대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근대 가부장제 국민국가로의 이행에는 ‘식민지’라는 타율적 근대화의 과정이 있었다. 식민지 체제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함으로써 해소되었으나,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은 식민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굴절된 방식으로 강화했다. 이를 포스트 식민지적 기억상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소설에는 자신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문제적인 남성들이 등장한다. 이는 ‘식민지 남성성’이라는 이름으로 분석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식민지 남성성’이란 피식민 남성이 자신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제국의 남성을 비판하면서도 그에게 동일시함으로써 제국주의 논리를 모방하는 행위, 혹은 식민지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피식민 여성에게 돌려 여성성을 타자화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남정현 소설의 경우 제국 남성에게 동일시하며 그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창섭 소설의 경우 여성의 주체성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멸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남정현 소설의 경우 피식민 남성의 ‘주체성 상실’이라는 위기의식은 그 불안감과 울분을 여성 인물에게 투사하여 그를 객체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인물의 젠더-과잉수행은 필연적으로 자기기만을 낳게 된다. 피식민 남성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적 논리·국가주의적 논리를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정현 소설의 젠더-과잉수행 속에서는 저항의 전망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구세주 망상’에 빠져있는 남성 인물의 자기파괴적인 결말로 소설이 마무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때 인물이 집착하는 ‘남성성’은 우스꽝스러워지고 파괴되고 만다.

이와 대조적으로 손창섭 초기 단편소설의 남성 인물들은 결혼을 비롯한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거부하는 등 젠더를 비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그들이 동시에 극단적인 자기부정의 정서를 내비친다는 것이다. 무기력한 남성 인물들이 보이는 자기부정은 근대 남성적 섹슈얼리티의 소외와 더불어 자신이 경멸하는 대상에게 의

존할 수밖에 없다는 ‘자승자박’적 상황에 기인한다. 이러한 역설은 남성 주체로 하여금 자기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아적 욕망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여성의 ‘사물화’된 신체를 동경하는 모습으로 굴절되거나, 여성 인물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와 구별되는 동성애적 친밀성을 가시화한다.

이처럼 남정현과 손창섭의 소설에 드러난 두 남성성의 수행방식은 ‘식민지 남성성’을 각자 다른 양상으로 재현하면서도, 젠더 수행성의 양극단에서 그것의 ‘남성성’을 상대화시킨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젠더란 “변화하거나 맥락화된 현상으로서,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수한 일련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 수렴의 지점”<sup>85)</sup>이다. 따라서 젠더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젠더 규범이 수행을 통하여 재생산되는 것이라면, 다양한 ‘몸의 실천’으로 인하여 그 인용의 과정에서 규범을 상대화하거나, 혹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정현과 손창섭의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남성성’의 풍자와 이탈은 결국 남성 젠더의 규범이 실천으로 배치되는 과정 속의 모순과 균열을 드러낸다.

‘풍자’의 어원은 본래 ‘가득히 담긴 접시’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풍자는 대상의 특성을 과장하여 그 속성을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그것의 모순성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형식이다. 남정현 소설의 남성 인물은 식민지 남성성을 드러내지만, 역설적으로 인물의 젠더-과잉수행으로 하여금 그것을 폭로하고 곧이어 풍자하게 된 것이다. 이는 남성성의 ‘내파’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탈’이란 특정한 범주에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일컫는다. 손창섭 소설에서는 섹슈얼리티의 소외로부터 비롯된 남성 인물의 자기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적 섹슈얼리티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물의 이탈이 다시금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포섭되지 않을 순 없겠으나, 규범적 남성성에서 ‘고결하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그것의 외부, 즉 여성과 남성 동성애를 배제한 규범적 남성성의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를 가시화하는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남성성’의 풍자와 이탈로의 미끄러짐은 ‘남성’과 ‘비남성’을 구분하고 그것을 타자화하여 구성되는 근대 젠더 이분법의 위계 속에서 ‘남성성’이라는 젠더가 갖는 내부적 모순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을 이분법의 지배적 규정이 아닌,

85)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84쪽.

젠더 수행의 스펙트럼 속 하나의 수행방식으로 분석하여 그것의 차이를 연구하는 작업은 남성성의 규범을 해체하는 젠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전후 남정현과 손창섭의 소설을 젠더 수행성 스펙트럼의 양극단으로 비교하였으나, 그 스펙트럼 속에 자리한 다양한 수행들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남성성’들을 두 축으로 하여 전후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남성 인물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그 젠더 수행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후속 연구로 이어갈 예정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남정현문학전집1』, 국학자료원, 2002.  
 『남정현대표소설선집』, 실천문학사, 2004,  
 손창섭 단편선, 『비오는날』, 문학과 지성사, 2005.

### 2. 논문 및 단평 자료

- 강유인화, 「식민지 조선과 병역 의무의 정치학-일제의 징병제 시행과 ‘국민됨’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9, 2016.  
 강진호, 「외세의 질곡과 민족의 주체성」, 『돈암어문학』 12, 1999.  
 공종구, 「손창섭 소설의 기원」, 『한국현대소설학회』 40, 2009.  
 광상인, 「손창섭의 장편<인간교실>에 나타난 ‘시선’의 이중구조와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40, 2011.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학회』, 45, 2017.  
 김병걸, 「상황악에 대한 끈질긴 도전」, 『남정현문학전집3』, 국학자료원, 2002.  
 김원규,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결혼 거부의 의미」, 『현대문학의 연구』 75, 2021.  
 김윤정, 「남정현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김종욱, 「민족담론과 여성의 이미지-남정현론」, 『한국현대문학연구』 13, 2003.  
 김주리, 「손창섭 소설의 매저키즘과 여성」, 『人文論叢』 76, 2019.  
 김현경, 「손창섭 단편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형중, 「남정현 소설에 나타난 정신병리와 권력의 테크놀로지 -풍자와 정신병리2-」, 『인문학연구』 59, 2020.  
 김형중, 「남정현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시론-풍자와 정신병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2005.  
 김흥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 하위주체의 위상」, 『국어학회』 56, 2014.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수호 양



- 상], 『상허학보』 42, 2014.
- 백낙청, 「저항문학의 전망」, 『조선일보』, 1965.7.13
- 신창용, 「남정현 소설 『분지』에 관한 연구-반미주의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 논문, 2004.
- 오양진, 「캐리커처의 인류학-남정현 소설의 풍자와 아이러니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7, 2006.
- 오탈호,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에 나타난 전후(戰後) 실존의식 연구 - 양가적 세계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3, 2014.
- 오혜진, 「재난 이후 일상, 비명과 침묵 혹은 그 사이의 균열-손창섭의 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4, 2019.
- 윤조원,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17, 2009.
- 이기인, 「손창섭 소설의 미적 구조」, 『어문논집』 27, 1987.
- 이다온, 「전후 손창섭 문학의 애도와 멜랑콜리 1950년대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3, 2018.
- 이미정, 「전후문학에 나타난 남성성 내면화 과정 연구-남정현 소설의 반미감정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7, 2006.
- 이봉범, 「남정현 문학의 알레고리와 풍자」, 『반교어문연구』 8, 1997.
- 임경순, 「남정현 소설의 성-여성과 윤리 그리고 반공주의」, 『상허학보』 21, 2007.
- 임현영, 「승리자의 울음과 패배자의 웃음」, 『분지』, 한겨레, 1990.
- 장영우, 「통곡의 현실, 고소의 미학」, 『남정현문학전집3』, 국학자료원, 2002.
- 장용경, 「‘朝鮮人’과 ‘國民’의 간극 - 전시체제가 內鮮一體論의 성격과 조선 지식인들의 대응-」, 『역사문제연구』 15, 2005.
- 장은영, 「전후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 『한국비평문학회』 65, 2017.
- 전성욱, 「전후의 현실과 섹슈얼리티: 손창섭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7, 2010.
- 조명기, 「손창섭의 「生活的」에 나타난 전후의식」, 『語文學』 87, 2005.
- 허윤,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Undoing」, 『여성문학연구』 30, 2013.
- 홍혜원, 「남정현 소설과 탈식민주의-담화 전략과 여성 표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4, 2007.

### 3. 국내 단행본

- 권김현영 엮음,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김형중, 『소설과 정신분석』, 푸른사상, 2003,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인문학용어대사전』, 국학자료원, 2018.

### 4. 국외 단행본

- 일레인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래인 코넬,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명희 역, 『늑대인간』, 열린책들, 1996.  
 지그문트 프로이트, 홍혜경·임홍빈 역, 『정신분석강의(하)』, 열린책들, 1997.  
 우에노 지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조지 모스, 공임순 역,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